

2012-PR-37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

Study for Social Innovation Ecosystem in Asia

변미리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

Study for Social Innovation Ecosystem in Asia

2012



■ 연구진 ■

연구책임	변 미 리 • 미래사회연구실 실장
연구원	김 해 란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박 민 진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곽 현 지 •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선임연구원
	한 선 경 •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선임연구원
	양 소 연 •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선임연구원

이 보고서는 아시아 사회혁신 서밋(Asia Social Innovation Summit) 행사를 상세 정리한 백서형태의 보고서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서론

1. 연구배경

- 2012년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을 거론하면서 사회혁신이 세계가 처한 새로운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는 논의를 전개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사회혁신과 시민참여 부서를 백악관에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혁신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임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혁신국을 신설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NGO의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내용

- 아시아 비정부조직 혁신 서밋 개최(ANIS)
- Social Innovation Exchange(SIX) 홍콩 콘퍼런스 리뷰
-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모델 논의
- 서울시가 아시아 사회혁신 본부(헤드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에 대한 일부 위탁 연구 수행
 - ANIS 회의관련 기획 및 진행(희망제작소)

3. 사회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혁신의 정의

○“사회(Social)”란

- 사회적 수요 또는 사회 문제
- 사회적 가치
- 창의성과 대중지향적 가치 사이의 균형

○“혁신(Innovation)”이란

- 창의성
- 성과 개선적
- 광범위적
- 실행력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란

- 사회적 수요와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용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그 대안
-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담보
- 사회혁신의 결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새로운 반응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well-being) 개선
- 목표와 수단의 두 측면에서 모두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적 필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생산물, 서비스, 모델), 새로운 사회적 관계 또는 협력의 창출, ‘사회에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실행 능력을 키우는 것’(홍일표, 2012)

2) 사회혁신의 등장

- 유럽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로는 기술 변화, 지구화, 에너지 식량 안전, 기

후변화, 성역할 전환, 이민, 경제적 사회적 배제, 고령화 등이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증폭되는 추세

○사회혁신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유럽 사회의 총체적 발전 전략의 논의 맥락 속에서 등장

—‘혁신’은 ‘지식(knowledge)’을 경제, 사회 발전의 핵심에 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의 주요 요소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도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현명(smart)하며, 포용적(inclusive)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사회혁신을 통한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참여 개발, 생산과 소비 습관의 변화를 유도함

—“혁신은 사회에 배태되어 있다” 등 영역과 경계를 허무는 사회혁신이 등장하며,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 요청

—그러나 사회혁신 지원을 위한 모델과 제도는 여전히 취약하여, EU 차원의 개입 시도

—혁신의 ‘기원(origin)’으로서 ‘사회’를 의미하며, 사회와 경제의 관계 재설정(ex. CSR from charity to self-interest) 및 OECD에서도 ‘사회’에 근거를 둔 ‘혁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됨

—‘GDP’를 넘어선 진보와 웰빙의 중요성이 확산되며 사회혁신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직결

3) 사회혁신의 분야

○사회혁신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고령화, 기후변화, 국제이동성, 성장의 가치 변화가 있음



〈그림 1〉 사회혁신 6단계

4) 사회혁신의 이유

- 유럽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도전들
 - 지구화와 결합된 급속한 기술 변화, 이민, 실업, 빈곤과 사회적 고립,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이 서로 긴밀히 연결
- 유럽의 재정위기
 - 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 압박과 부채,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
- 전통적 방법들의 한계
 - 시장, 공공부문, 시민사회
-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경제력(ex. EU 노동인구의 6%(11백만명) 고용, 임금소득자의 4.2% 고용)
- 사회적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 사회적기업

○또 다른 기회(1) : ‘사회혁신’ 분야를 이끄는 유럽

—경제에서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직면한 과제들 대부분이 ‘사회적인 것’

—성장과 일자리 원천으로서의 사회

○또 다른 기회(2)

—SNS를 통한 새로운 협력, 이민을 통한 노동력의 양적·질적 개선, 동아시아의 성장과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 기후 변화에 따른 녹색 기술, 지속가능기술, 재생가능에너지 수요 증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도 장차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또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해설, 확산을 주도하려고 함

4. 사회혁신의 현황과 발전

1) 아시아의 사회혁신

○아시아 사회혁신의 방법론을 연구한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왓웍스(Whatworks) 연구팀은 아시아 사회혁신의 8가지 특징을 소개

—경제 성장과 통합

—도시화와 장소 만들기

—민주주의와 참여

—피플 파워(민중의 힘)

—지속가능성

—새로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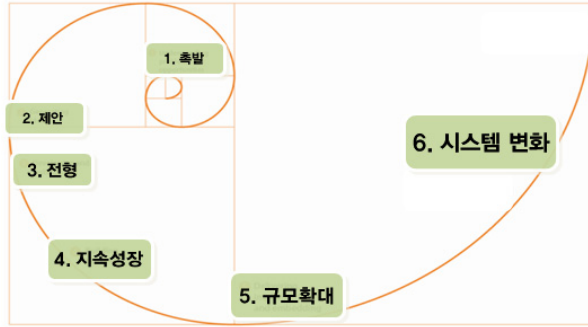
—정부의 지원

—대안교육모델

- 한국의 사회혁신은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2006년 희망제작소 창립 시 참여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 생겨났으며, 사회창안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창의적 생각의 수혜자는 시민들이라는 “참여 거버넌스”의 믿음을 실현시킴
 - － “사회창안 프로세스”는 사회창안센터의 시민 거버넌스를 실현시키는 첫 번째 시도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온라인으로 등록된 약 3,3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40개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됨

2)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 조직적인 차원을 넘어선 정부와 시민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방법이 필요
- 사회혁신의 프로세스 6단계
 - － (1) 촉발 : 질문하기, 촉발과 영감, 문제의 인식(연구, 조사, 자료수집, 문제의 가시화, 참여 요청, 진단)
 - － (2) 제안 : 정답 찾기, 해답의 상상, 다르게 생각하기, 개방적 혁신, 참여의 촉진, 기관 활용
 - － (3) 전형 : 전형 만들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재원마련
 - － (4) 지속성장 : 사업화, 소유구조와 조직형태, 지배구조, 조직과 경영 모델, 운영, 관련 자본, 벤처 재원, 공공 부문의 지원
 - － (5) 규모확대 : 보급, 영감, 요구의 확산, 공공부문을 통한 규모확대, 위임, 조달
 - － (6) 시스템 변화 : 새로운 시스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생산자/사용자 형성, 규제와 재정, 정보, 회계, 진보적 연합과 사회운동, 시스템 변화를 위한 재원마련



〈그림 2〉 사회혁신 프로세스 6단계

5. 사회혁신 국내외 사례

1) 사회혁신 국외사례

○사회혁신과 관련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표 1〉 사회혁신 해외사례

구분		주요내용
기업	인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더 나아가 사회혁신 요소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 - 인텔의 사회혁신 3가지 접근 ① 사회적기업 역량강화(Empowering social entrepreneurs) ②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하기(Transforming ideas into solutions) ③ 파트너십 환경 만들기(Building the partnership ecosystem)
	록펠러 재단	- 갈수록 복잡해지고 한 지역 국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사회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 - 기금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관과 개인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eco-system)를 조성
	식스 (Social Innovation Exchange;SIX)	- 그룹 구성원 :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영파운데이션의 소셜벤처로서 3,000개가 넘는 사회혁신 관련 기관, 개인, 단체, 학계 등 - 최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책적으로 시작한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시작 - 유럽 내 대표적인 사회혁신 네트워크인 유클리드 네트워크 등과 함께 유럽 전역에서 사회혁신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 - 매해 식스서머스쿨을 개최하고,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함. 최근 식스는 지역별 식스 네트워크를 론칭했으며 그 처음이 식스 아시아임

〈표 계속〉 사회혁신 해외사례

구분		주요내용
지방 정부	일본	- 뉴공공공유(New Public Common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정부만이 아니라, NPO, 일반 기업,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함
	호주	- 혁신적 디자인을 통한 효과적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예산 마련의 새로운 방안인 소셜임팩트본즈(Social Impact Bond) :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투자를 하고 이 서비스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가 원래 지출해야했던 서비스 비용을 투자자인 민간에게 돌려준다는 개념

2) 사회혁신 국내사례

○ 서울시의 시민사회혁신 사례

-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희망온돌 프로젝트 :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로 공공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임
- 트위터를 통한 즉각적인 시민 대응 시스템
- 커뮤니티 맵핑을 통한 새로운 공유 방식의 도입
- 적극적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페이스북을 통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시민 참여

○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과제

- 서울시 재정현황과 당면한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가지 조건(재정 건전성 제고, 재정 분권화 시스템 개혁, 참여, 인센티브와 동기 부여의 장치)의 선결이 요구됨
- 선결조건에 따른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혁신 추제 과제는 재정 바로 세우기(Financial Soundness), 재정 나누기(Fiscal Decentralization), 함께하기(Doing Together), 보상하기(Motivation)임

6.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적 방법론

1) 아시아 비정부조직 혁신 서밋(ANIS) 개요

- 제목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 2012
- 주제 : 사회혁신을 위한 섹터 간 협력
- 목적 :
 - 서울 및 아시아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인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국제적인 공유의 장으로서의 기능 조성
 - 아시아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일시 : 2012년 6월 13일 ~ 15일(2박 3일)
- 장소 : 웨라톤 디큐브 호텔, 그랜드 볼룸(6층), 서울, 한국
- 주최 : (재)희망제작소, 인텔 아시아, 서울연구원
- 후원 : 서울시
- 파트너 : 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Social Innovation Exchange), 아름다운 커피
- 연구 펀딩 파트너 : 록펠러재단
- 참가자 : 총 16개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참석
 -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중국, 타이완,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영국, 미국
 - 사회혁신계 활동가, 연구자, 공무원 98명, 서울시 특별 세션 참가자 53명, 일반 시민 43명 등 총 195명이 참가

2) 서밋 프로그램

-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세션을 구성하며 일

방적인 정보제공이나 전통적인 강연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신의 참여형 토론 기법 적용

〈표 2〉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내용
국제 사회혁신 프로그램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에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회혁신 관련 기관을 초대해 최근 국제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 리차드 홀(인텔, 기업의 사회혁신 담당), 아마라 이브라임(록펠러재단,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담당), 루이즈 폴포드(식스)가 초대되어 각 기관의 사회혁신 활동을 소개
아시아 사회혁신 프로그램	-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는 참가자들이 아시아 사회혁신의 흐름을 빠르고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그나이트(ignite)라는 방식을 도입 - 발표 후에는 세션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아시아 사회혁신을 보는 관점과 사례들을 제안하는 그룹 토론 - 총 6개 지역(홍콩,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에서 대표적인 사례와 흐름을 소개
참여형 오픈토론	- 주제별 토론 및 질의 : 기초발제와 각 세션의 주제 발표 이후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원재 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이 진행됨. 발표자 전원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진영 사장과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김인철 서울시 경영기획관, 김선순 복지정책관이 패널로 참여 - 오픈 협력 세션 : 오픈 협력 세션은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누구나 의제를 제안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열린 구조의 세션으로 진행됨. 총 6개의 주제가 논의되어 워킹그룹을 형성했으며 총 88명(중복 가능)이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기로 함

3) 행사성과

- 주제에 맞게 공공섹터, 비즈니스 섹터, 시민사회섹터가 공동주최기관이 되어 섹터 간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
-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힘
- 국제네트워크/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 아시아를 넘어선 국제사회혁신네트워크(식스, SIX)와 록펠러재단의 협력을 이끌어냄
- 지속적인 대화와 활동을 위한 워킹그룹 형성
- 아시아 사회혁신 사례들과 현황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직관적으로 논의되던 사례들의 혁신성, 사회성을 분석하는 기회를 마련함
- 아니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회혁신 사례를 제안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아니스 사회혁신 연구에 포함될 예정임

7.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1) 주체(섹터)별 역할 정립

- 성공적인 사회혁신을 위해 공공섹터는 직접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 환경과 장(기금마련, 중간지원조직, 제도적 지원 등)을 마련해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법들과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 민간(비즈니스)섹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기업의 사회적 혁신(Corporate Social Innovation)으로 변화해야 함
 - 기업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사회문제 해결전략으로 취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의 생산과 성장을 돕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는 사회문제 해결안 제시를 위해 다른 분야와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사회혁신을 위한 협력을 이끄는 촉진제 역할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2) 주요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1) 사회적기업 분야

-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펀딩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로, 사회적기업의 내적인 능력 즉 흐름, 유연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 확장성이 중요함
 -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펀딩은 ① 상품, 서비스 개발, ② 시장에 진입, ③ 수익성, ④ 확장성 등 4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마다 다른 수입/비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다른 펀딩이 필요함
-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기금마련의 혁신적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 개미스폰서 프로젝트, 굿펀딩, 펀듀, 업스타트, 텀블벅, 콘크리트 등이 등장함

- 아름다운재단은 1% 기부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개미스폰서 프로젝트), 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및 NPO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현재 6천 4백만원이 모금되었으며, 총 1,618명이 참가함

(2) 커뮤니티 개발 분야(Community Building)

- 가와드 칼링가(Gawad Kalinga)는 필리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가난과 홈리스(Homelessness)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커뮤니티 개발 모델로, 다양한 활동가들이 관계를 형성해 협력하는 것을 강조함
 - 정부 기관, 사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개인 기부자의 협력을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역량을 가진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노력
 - 홈리스에게 물리적인 주거공간과 사회적 프로그램(가치형성, 건강, 경제력, 아이들과 청년 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가 식량 생산 등)을 함께 제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
- 성미산마을은 얼굴 없는 개인화와 과열되는 경쟁심리에 맞서 협력적인 마을 모델을 실험하고 창조해 옴
 - 이 공동체는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기반의 전통적인 마을처럼 연대하게 됨으로써,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 생태계 형성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해결

(3)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분야

- 과학기술의 발전은 90%의 소비 무능력자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질문에서 사회적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음
 - 적정기술은 기존의 ODA 방식에서 점차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물론, 생산 기술과 생산품을 지역이 관리하고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

- 트리 몐푸니는 커뮤니티 중심의 수력발전소 개발을 통해 전력 공급 해결 및 전력 생산을 커뮤니티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커뮤니티의 경제력도 향상시킴
 - 수력발전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투자받아 설치한 시설을 커뮤니티가 소유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함
 - 이를 위해 마을 단위에서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30%의 기술과 70%의 사회적 노력으로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베리어브레이커스 기술(BarriersBreakers)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상 수화 통/번역 서비스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청각장애인들이 전화 등의 통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술임
 - 이를 위해 ① 전화 및 인터넷 할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② 수화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

(4) 디자인 분야

- 디자인은 최근 사회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입되고 있음
 - 그러나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물론, 디자인의 활용방식과 디자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 및 이해의 부족이 여전히 존재
 - 이에 따라 직업 디자이너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를 새로운 자리에 개입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 자체 및 개선과 해결의 과정을 디자인으로 인식하는 등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3)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조성

- 아니스의 워킹그룹은 아니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모임이며, 아니스 공동주최자들은 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실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니스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활동을 통해 지속적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주력

- ① 아니시드(ANISeed) 온라인 플랫폼 : <https://aniseed.basecamphq.com/>에서 워킹그룹별로 활동 및 관련 자료와 글 공유
- ② 워킹그룹별 미팅 진행 : 인텔에서 지원하는 웨비나(Web+Seminar) 플랫폼이나 그 외 전화, 스카이프 등을 통해 정기적인 토론 운영
- ③ 아니스 웨비나 시리즈 : 지역적인 거리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콘퍼런스 톨로, 사회혁신 트렌트 소개 및 베스트 사례를 공유
- ④ 아니스 콘퍼런스 : 매년 진행되는 아시아 사회혁신가들의 플랫폼으로 워킹그룹의 활동 내용이 오픈 협력 세션 외에도 세션 주제로 진행

II. 결론

1. 사회혁신 활성화 방법

- 중간지원조직
- 우수 혁신 사례 선정과 시상
- 혁신지원팀 설립
- 혁신 허브 구축
- 혁신 지원 기관/조직 설립
- 혁신 네트워크 구축
- 혁신 플랫폼 마련

- ‘사회적 경제’의 발전(사회적 경제는 사회혁신의 원천)
- 정부는 ‘사회혁신’ 지원
 - 과거에 정부는 사회혁신의 선구자였으나 혁신을 제약하는 구조로 고착되어 표준화된 해법만 양산
- 사회혁신에 관한 전략적 사고
- 혁신 활성화를 위한 공적 재원의 활용
 - R&D 예산의 효과적 활용, 조직 내부 혁신 지원을 위한 예산 활용, 책임의 배분과 민주적 혁신, 새로운 과세와 공적 자원 확대, 지급방식과 수단 혁신, 공적 투자 등
- 법제화
-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작업장으로부터의 혁신
- 조직 내·외부 협력 강화

2. 주요 분야 간 협력 방안

- 적절한 기술의 사용과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마을 단위에 알맞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커뮤니티 간의 협력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 및 진정성이 필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따른 규제 및 기술활용을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와 섹터 간 협력이 중요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방법	4
제2장 사회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7
제1절 사회혁신의 정의	7
제2절 사회혁신의 주요이슈	9
1. 사회혁신의 등장배경	9
2. 사회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9
3. 사회혁신의 주요이슈와 영역	10
제3절 사회혁신의 주체	11
1. 개인	11
2. 변화를 위한 운동	12
3. 혁신적인 조직	13
제3장 사회혁신의 현황과 발전	17
제1절 아시아의 사회혁신	17
1. 아시아 사회혁신의 발달 배경	17
2. 아시아 사회혁신의 특징	18
3. 한국의 사회혁신	22
제2절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24
제4장 사회혁신 국내외 사례	31
제1절 국외사례	31

1. 기업의 사회혁신	31
2.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33
제2절 국내사례	36
1. 서울시의 시민사회 혁신 사례	36
2.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과제	36
제5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적 방법론	41
제1절 행사 개요	41
1. 행사 목적	41
2. 행사 구성	41
3. 행사 구조	42
4. 행사 프로그램	44
제2절 행사 설계	46
1. 주제 선정	46
2. 참가자 및 발표자	46
3. 프로그램 세션 기획 및 콘텐츠 기획	48
제3절 행사 결과	57
제6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61
제1절 주체(섹터)별 역할 정립	61
1. 공공섹터의 역할	61
2. 민간(비즈니스) 섹터의 역할	62
3. 시민사회 섹터의 역할	62
제2절 주요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63

1. 사회적기업 분야	63
2. 커뮤니티 개발 분야(Community Building)	64
3.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분야	66
4. 디자인 분야	68
제3절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조성	69
1. 구성 및 역할	69
2. 향후 활동 방향과 과제	73
제7장 결론	79
제1절 주체(섹터)별 협력 방안	79
제2절 주요 분야 간 협력 방안	80
참고문헌	83
부 록	87
1. 참가자 리스트	87
2. 관련 자료	90
3. 활동 사진	96

표 목 차

〈표 2-1〉 사회혁신 개념 정의	8
〈표 2-2〉 사회혁신 정의의 키워드	8

그림 목 차

〈그림 2-1〉 사회혁신 6단계	10
〈그림 3-1〉 사회혁신 프로세스의 단계	26
〈그림 3-2〉 지방정부 혁신 도입 방식	27
〈그림 5-1〉 행사 구성도	42
〈그림 5-2〉 행사 프로세스	43
〈그림 5-3〉 기조연설 사진	47
〈그림 5-4〉 기조연설 중인 제프 멀건	47
〈그림 5-5〉 기조연설 중인 박원순	48
〈그림 5-6〉 세계 사회혁신 투어	49
〈그림 5-7〉 인텔 기업의 사회혁신	50
〈그림 5-8〉 록펠러 재단의 사회혁신	50
〈그림 5-9〉 식스(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51
〈그림 5-10〉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52
〈그림 5-11〉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발표자들	53
〈그림 5-12〉 행사 토론 및 질의	54
〈그림 5-13〉 오픈 협력 세션 진행 모습	55
〈그림 5-14〉 주제별 오픈 협력 세션 토론 내용 및 토론 결과 발표 모습	56
〈그림 6-1〉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향	73
〈그림 6-2〉 아니스 워킹그룹 활동 이용 수단	74
〈그림 6-3〉 아니시드 : 온라인 플랫폼	74
〈그림 6-4〉 아니스 웨비나 시리즈	7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 서울시정의 목적은 시민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제반 환경은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사회혁신이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론과 프로그램, 실행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지역 커뮤니티차원에서도 다양한 수준으로 시도되고 있음
- 서울시는 최근 사회혁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가능성이 높으며, 아시아 최초로 도시 정부차원에서 사회혁신 담당조직을 설립하고 지원 정책을 계획하는 등 사회혁신 주도 그룹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사회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수준의 연구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외 사회혁신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혁신파트너들과의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형성

단계에 있는 서울의 사회혁신을 촉진하며 나아가 아시아 사회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혁신국을 신설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NGO의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제2절 연구내용

- 아시아 비정부조직 혁신 서밋 개최(ANIS)
- Social Innovation Exchange(SIX) 홍콩 콘퍼런스 리뷰
-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모델 논의
- 서울시가 아시아 사회혁신 본부(헤드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

제2장 사회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혁신의 정의

제2절 사회혁신의 주요이슈

제3절 사회혁신의 주체

제 2 장

사회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혁신의 정의

- 19세기 사용된 ‘사회적 경제’, ‘제3섹터’는 연대와 호혜성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서의 사회혁신을 의미함
- 1990년대 이후 사회혁신 개념이 재부상함
 - － 인터넷 기술의 발달,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관계(망)의 구성, 최근의 금융·재정 위기 상황에서 사회혁신 개념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함
- 사회혁신에서 사회(social)란 사회적 수요 또는 사회문제, 사회적 가치, 창의성과 대중지향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며, 혁신(innovation)이란 창의성, 성과개선적, 광범위적 실행력을 의미함
-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회혁신은 사회적 수요와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용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담보로 하고, 사회혁신의 결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함. 이외에도 사회혁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기관별로 다양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사회혁신 개념 정의

학자/기관별	정의
날슨(2003)	작금의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빈곤, 질병, 폭력 또는 환경오염과 같은 심오하고도 기존에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중요하고,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이동
골덴베르크 (2004)	개인과 커뮤니티가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새롭거나 개선된 활동, 시도, 서비스, 프로세스, 결과물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는 것
Mulgan(2007)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리킨다. 억압되어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충족시킬 새 아이디어를 디자인해내고, 개발해내며, 발전시키는 프로세스
피어슨(2007)	사회혁신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과를 내는 새로운 것들과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여 성과를 내는 것
빌레 & 폴(2008)	삶의 질이나 양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
사회혁신 스탠포드 (2008)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즉 기존의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며, 해결책에서 창출된 가치는 주로 사적인 개개인들보다 사회 전체에 축적됨
Plan Institute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 정책, 관계, 자원들을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으로 도입하는 것을 통해 깊이 뿌리박힌 사회적 문제들을 변환시키는 것
Public Innovators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 변혁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실천
사회혁신을 위한 센터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방법들의 디자인과 실현임. '더 나은 방법' 이라 함은 변혁적인 개선으로, 점진적인 개선
Social Innovation Generation in Canada	사회혁신은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본 규칙, 관련 자원, 권한의 흐름이나 믿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나 결과물, 프로세스 혹은 프로그램
Plan Institute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 정책, 관계, 자원들을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으로 도입하는 것을 통해 깊이 뿌리박힌 사회적 문제들을 변환시키는 것

출처 :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http://idea.makehope.org>)

- 사회혁신과 관련된 정의들은 사회혁신과 관련된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표 2-2>는 이 키워드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해 보여주고 있음

〈표 2-2〉 사회혁신 정의의 키워드

시작	사회적 필요, 시장 실패, 사회적·경제적 도전들, 과거에는 다루기 힘들었던 문제, 사회 문제, 주요 목적은 사회적인 것, 사회적 웰빙이 목표
방법/프로세스	새로운, 창의적인, 개선, 커뮤니티, 변혁, 혁신, 참여, 변화, 유연성, 상호작용, 연대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발전
결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공공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과 지구에게 혜택을 주는, 규모·조직을 통해 개발되고 확산된,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한 이동,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실천, 기존 규칙의 변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의 변화, 권력 흐름의 변화, 전체로서의 사회,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

제2절 사회혁신의 주요이슈

1. 사회혁신의 등장배경

- 사회혁신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유럽사회의 총체적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 맥락 속에서 등장함
 -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에서 ‘혁신’은 ‘지식(knowledge)’을 경제, 사회 발전의 핵심에 둔 주요 요소임
 -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에서도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현명(smart)하며, 포용적(inclusive)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사회혁신을 통한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참여 개발, 생산과 소비 습관의 변화를 유도함
 - 혁신의 ‘기원(origin)’으로서 ‘사회’를 의미하며, 사회와 경제의 관계 재설정(ex. CSR from charity to self-interest) 및 OECD에서도 ‘사회’에 근거를 둔 ‘혁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
 - ‘GDP’를 넘어서 진보와 웰빙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혁신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직결됨
- 유럽사회는 기술변화, 지구화, 에너지와 식량 안전, 기후 변화, 성역할 전환, 이민, 경제적·사회적 배제, 고령화 등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도전이 필요함
- 유럽은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로 재정 압박과 부채,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시장, 공공부문, 시민사회 모두 전통적 방법들에서 한계가 나타남

2. 사회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 사회적 기업가들 : ‘거대한 전환-새로운 모델의 형성’을 주제로 한 2012년

세계경제포럼¹⁾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혁신이 세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사회혁신과 시민참여 부서’를 백악관에 설치하고 ‘사회혁신펀드’ 마련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수상 : ‘큰 사회은행(Big Society Bank)’ 설립
-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신설

3. 사회혁신의 주요이슈와 영역

-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시기는 현존하는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거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기관들이 현재 문제보다는 과거의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을 때임
- 사회혁신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고령화, 기후변화, 국제이동성, 성장의 가치 변화이며 이를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음

Mega Issue	SI 영역
고령화	- 연령 - Caring - 세대 간 상호지원 문제 - 주거디자인 & 도시디자인 - 노인고립화
기후변화	- 교통수단, 주거모델에서의 탄소배출억제 방법 - 생활양식 변화
국제이동성	- 다문화 적응방법 - 다문화 갈등조정기제(교육 · 언어등)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 복지문제해결방식 - 공공질서 & 공동체 윤리 - 행복추구권

자료 : 윤지현(2010 ; 126-127)

〈그림 2-1〉 사회혁신 6단계

-
- 1)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화,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

제3절 사회혁신의 주체²⁾

1. 개인

- 소수의 영웅적이고, 활동적이며, 사회변화를 원하는 개인들이 먼저 사회변화를 만들어왔음. 역사는 이런 개인들이 대다수를 설득해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고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 로버트 오웬, 옥타비아 힐, 마이클 영 등이 이런 역사적 관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임
- 18세기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혁신가인 로버트 오웬은 뉴래나크(New Lanark) 지역에서 4개의 방직공장을 사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닌 세상을 재창조 하는데 쓰기로 함. 오웬의 경영하에서 뉴래나크의 방직공장과 마을은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었음. 그는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탁아소를 만들고, 무료 의료 진료와 저녁수업을 포함하는 종합교육을 시작하였음. 이렇게 새로운 협동적이고 상호주의적인 운동은 거대한 영향을 미침
- 19세기 오웬의 추종자였던 옥타비아 힐은 그녀가 아이일 때부터 위생 혁명의 아버지인 토마스 사우스우드 스미스 박사, 기독교 사회주의자의 리더인 모리스, 존 루스킨 등 동시대 진보적 사상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음. 1864년 루스킨은 악명 높은 슬럼가인 파라다이스 플레이스에 건물 3채를 사서 옥타비아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음. 그녀의 훈련 프로그램은 주택 관리의 기본을 이뤘으며 첫 번째 기관인 호라스 스트리스 트러스트는 이후 모든 주택 연합의 모델이 되었음. 그녀는 도시 내 10대의 사고를 위한 사관 학교를 시작했고 공공 공원을 만들었으며 예술과 아름다움으로 병원들을 장식할 것을 캠페인 하기도 하였음. 1895년에는 내셔널 트러스트를 설립함
- 20세기 저명한 사회적 혁신가인 마이클 영은 1945년 노동당 리서치부서장으로서는 복지국가 형성을 돕고, 국민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근본적인 사회

2) 윤지현, 2010, “사회혁신의 이해”, 『한국사회혁신학회보』 제1권 제1호, 한국사회혁신학회, pp.124-132

적 혁신과 포괄적인 복지 규정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힘을 보았음.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새로운 조직과 모델들을 창조했다는 것임. 열린 대학, 소비자 연합, 랭귀지 라인(Language Line), 추가교육, 열린 예술대학 등 60여개의 독립적 조직들이 그것임

- 이외에도 유명한 사회혁신 리더들이 있으며 이들은 부조리에 반하여 싸우고, 급진적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는 용기 있는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2. 변화를 위한 운동

- 환경주의는 19세기에 숲 보호나 환경보호를 위한 운동 등의 전조가 있었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고무된 운동, 대기업들의 오염에 반대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운동, 각국의 녹색당이나 그린피스와 같이 직접적 조치 운동 등 환경에 기초한 여러 운동이 있었음. 환경주의는 도시 재활용부터 지역 농장까지 다양한 범위의 사회적 혁신을 만듦. 오늘날의 환경주의는 유기농 음식문화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치 정부 및 시민사회까지 대안사업뿐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페미니즘은 매우 다양한 풍조로부터 성장했음. 서구에서는 18세기와 산업혁명의 인간주의,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 여성의 공화당 클럽에서 페미니즘이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는 지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운동으로 진화되었고, 법률제정 등을 통해 결실을 이루어오고 있음. 특정 직업에 여성의 할당량을 증진시키거나 아동돌봄센터의 통합, 낙태 권리, 공정한 이혼법, 강간과 성희롱 방지, 육아 휴직 및 어머니들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들이 노동시장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달성함
- 변화를 위한 운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점차

국경을 넘어 협력을 꾀하고 있음. 인상적인 풀뿌리 운동들은 급진적인 사회적 혁신 확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혁신을 널리 퍼뜨리고 있음

3. 혁신적인 조직

- 모든 혁신이 새로운 조직들에서 오는 것은 아님. 많은 사회적 혁신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이 스스로 경신하고자 하는 데서 옴. 인터넷은 미국 군대 내에서, 기후 변화의 초기 이해는 미항공우주국 NASA로부터, 아이들 양육 관련 진보된 아이디어들은 덴마크와 같은 국가 내 기존 공공조직과 전문조직들 내에서 진화했음. 조직이 성공하려면 현존하는 활동과 떠오르는 활동들, 그리고 미래 주력 활동이 될 수 있는 더 급진적인 가능성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사회혁신의 현황과 발전

제1절 아시아의 사회혁신

제2절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제 3 장

사회혁신의 현황과 발전

제1절 아시아의 사회혁신

1. 아시아 사회혁신의 발달 배경

1) 홍콩의 사회혁신

- 홍콩은 150년간 식민지였으면 지난 14년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었음. 지난 14년간 점진적인 탈식민지화가 진행되었으며, 홍콩 시민들이 눈을 뜨면서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되고 있음.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특히 의사결정 및 권리 주장에의 참여 요구가 늘어남
- 한편으로 홍콩은 14년간 점진적인 재식민지화가 진행됨. 중국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홍콩의 자주성은 훼손됨.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시민참여나 주민참여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은 공공주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커뮤니티 내 역사적인 장소들의 재개발에서 볼 수 있음. 홍콩의 역사를 간직한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문화적 유산들이 위기에 처하지만, 정부는 지역 문화와 유산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도 하는 재개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실정임. 이는 바로 사회혁신적 아이디어의 부족을 의미함

-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가, 시민, 거주민 중심의 반대 운동과 논쟁 토론은 초기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문제의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블루하우스와 같이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냄
- 블루하우스는 홍콩 사회혁신의 씨앗으로 이곳에서 섹터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이 구상되기 시작함

2) 태국의 사회혁신

- 태국의 지난 해 홍수는 8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6백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재난 당시 많은 이들이 정부나 큰 규모의 기관이 해결해주기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속수무책이었음
- 이와 달리 일반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기 시작함
 - ① 100,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참여
 - ②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의 시암아시아(SiamAsia) 페이지는 단 2명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5,000명 이상이 이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되었음
 - ③ 청년 그룹은 400,000바트의 기부금을 모았으며, 교환학생들도 함께 함
 - ④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전기 감전을 막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팀을 이뤄 수천 개의 ‘Floodduck(홍수오리)’을 만들어 배포함
- 일반 시민들이 보여준 사회혁신의 씨앗을 연결할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2. 아시아 사회혁신의 특징

- 최근 아시아 사회혁신의 방법론을 연구한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왓웍스(Whatworks) 연구팀³⁾은 아시아 사회혁신의 8가지 특징을 소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경제 성장과 통합

-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빈부격차, 양극화,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해짐에 따라 그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함
- 이와 함께 아시아 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를 마주하면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신경제주의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됨
- 사례 : 성미산마을(한국), 가와드 카링가(필리핀)

2) 도시화와 장소 만들기

- 아시아는 가장 빠른 도시화를 보이는 지역⁴⁾으로, 이로 인해 나타난 도시 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질 좋은 서비스(거주권, 안전, 법, 교육, 보건서비스 등)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지역의 중심, 지역의 지혜와 자산과 지역의 시스템에 기초한 장소만들기가 시도되고 있음
- 사례 : 슬럼드웰러 인터내셔널(Shack/Slumdweller international)커뮤니티 개발 인스티튜트(CODI : Community Organization Development Institute), 문화 지도그리기(태국)

3) 민주주의와 참여

- 아시아 사회혁신의 아주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임
-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지방자치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참여 민주

3) 왓웍스 연구 프로젝트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통해 영과운데이션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임. 이 프로젝트는 개별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사회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살펴보는 연구로 크라우드소싱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주요 대상지는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이며 연구 기간은 1년(2011~2012)임(findingwhatworks.org).

4)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50년 아시아 도시 인구가 지금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아니스 세션 중).

- 주의가 떠오름. 정부도 이에 호응하면서 참여는 더욱더 중요해주고 있음
- 하지만 참여는 종이나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점에서 시민과 이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최근 중간지원조직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참여의 장을 만들어내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사례 : 사회창안대회(한국), 커뮤니티 뮤지엄(홍콩)

4) 피플 파워(민중의 힘)

- 사회혁신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들이 있음. 실제 사회적 변화를 창조하고 있는 이런 시민들은 서양 등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하위 그룹이 아닌 전통적이지만 느슨한 네트워크의 형태나 더 새로운 형식으로 활동
- 이러한 시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첫째는 풀뿌리 혁신가들로 지역의 필요와 목소리에 대응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둘째는 Y세대 혁신가로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새로운 매체를 통해 도시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사례 : 프레이난 로제름바타나, 아쇼카 펠로우(풀뿌리 혁신가), 오픈 드림, 체인지퓨전(태국, GEN Y)

5) 지속가능성

- 사회 혁신적 아이디어들과 이니셔티브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마이크로 크레딧, 사회적기업, 새로운 정책과 모델들이 시도되고 주목받고 있음
- 사례 : 사회적기업, BOP(bottom-of-pyramid), 인구 및 커뮤니티개발협회(PDA)

6) 새로운 기술

- 최근 모바일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혁신의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 사회적 정치적 동원, 거버넌스의 형태와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비판과 대응만이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사례 : 무료점심캠페인(Free Lunch Campaign), 박원순 펀드(소셜 미디어와 크라우드 펀딩), 싱크 카페

7) 정부의 지원

-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부드러운)제도적 지원과 제도적 혁신, 정치적 리더십 등이 필요함
- 최근 거버넌스와 제도적 지원의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음.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거버넌스와 의사결정구조를 지향하며, 법적이고 재정적 틀을 마련해 거시적으로 지원함(예 : 사회적기업 촉진법)
- 하지만, 사회혁신을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직 미진하며 이는 정치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됨
- 사례 : 태국 헬스 프로모션 재단

8) 대안교육모델

- 아시아 사회혁신에서 독특한 특성은 교육임. 아시아 내 주입식 교육의 열풍과 함께 대안적 교육 모델이 소개되고 있음.
- 이러한 대안교육모델은 다음 세대를 새로운 혁신의 소비자가 아니라, 혁신을 일으키는 생산자로 키우는데 주목하고 있음
- 사례 : MAD(Make a Difference) 홍콩, 하자센터 한국, 스쿨 오브 쏫트(School of Thought) 싱가포르

3. 한국의 사회혁신

1)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 프로그램

- 희망제작소의 사회창안센터는 2006년 희망제작소 창립 시 참여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 생겨났음. 사회창안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사회 변화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창의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혜택의 수혜자는 바로 시민들이라는 “참여 거버넌스”의 믿음을 실현 시킴. 시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회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결책들도 역시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었음
- 그러나 일반 대중이 제안한 해결책이 실행되기까지 명확하고도 쉬운 방법이 흔치는 않았음. 대중의 아이디어를 모아 해결책으로 실행되는 것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있다면, 더 쉽게 시민 참여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음. 사회창안센터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발전시키고 있음
- “사회창안 프로세스”는 사회창안센터의 시민 거버넌스를 실현시키는 첫 번째 시도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온라인으로 등록된 약 3,3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40개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됨
- 사회창안 프로세스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됨.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창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아이디어들은 삶의 질/사회 복지, 공공재, 경제, 문화/예술, 환경, 지역/참여, 인권/소수 집단 등으로 분류됨.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누구라도 등록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 매주 사회창안센터 연구원과 시민 패널이 함께 아이디어의 실행을 위해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아이디어와의 중복성, 공공적 가치, 아이디어의 실현 타당성 등을 평가함. 평가를 통과한 아이디어들은 신문 캠페인이나 여타 미디어들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됨. 미디어 캠페인의 목표는 공공논의

를 진행시키고, 그 결과로 공공 합의까지 이끌어내기 위함임. 이와 함께 사회창안센터는 시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모여 선정된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제기된 안전들에 대해 토론하는 와글와글 포럼을 기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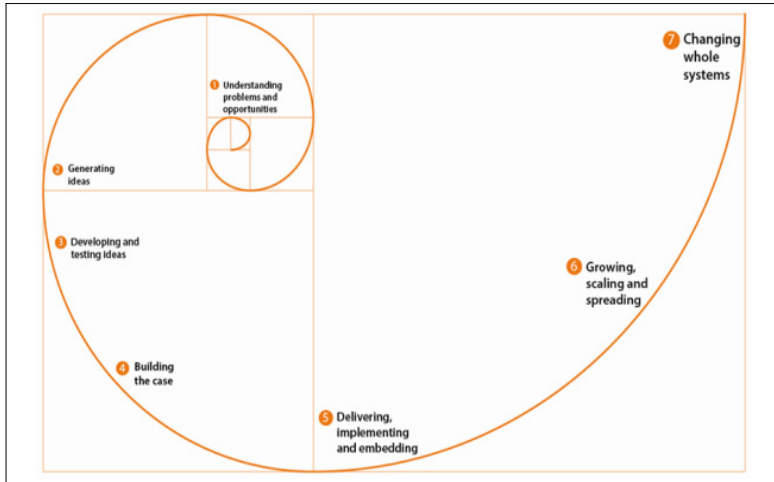
- 법제화가 필요한 아이디어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초당파 모임인 호민관 클럽에 넘겨지는데 호민관 클럽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 상정까지의 법제 과정을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각기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 38명이 속해있음
- 이처럼 와글와글 포럼과 호민관 클럽 등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는 마침내 법제 과정이나 관련 공공 기관 및 지방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현실화되며 때로는 채택된 아이디어가 그것의 실행과 관련된 민간 기업으로 전달되어, 바로 이 아이디어들이 반영된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제공되기도 함
-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회창안 프로세스 운영에 이어, 2008년부터 사회창안센터는 매년 사회창안 대회를 개최함. 이 대회는 일반대중들이 제안한 사회문제 해결안과 상세 실행 계획을 평가하는 전국적 규모의 대회로 시작되었는데 사회창안 센터는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특정 사회적인 문제들(예를 들어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함
- 2008년에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반 대중의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모집한 결과 총 763개의 아이디어가 등록되었고 그 중 최종 10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음. 결선 대회 때에는 아이디어 제공자들이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음
- 2009년에는 대회 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최종 5개의 아이디어를 웹 페이지를 통해 선정한 후 아이디어 제공자들에게 두 달의 시범실행 기간을 줌. 아이디어 제공자들은 두 달간의 시범실행 이후 결과를 최종 경연일에 발표함. 이러한 방법은 아이디어 제공자가 짧은 기간 안에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됨. 따라서 초기 시범실행의

- 결과는 심사위원들이 우승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됨
- 2009년 대회에서 발표된 제안들 중 몇몇은 지금도 그 개발과 운영이 진행 중이며, 도시 농업 프로젝트인 “이웃, 랄랄라”,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기존의 편견을 없애기는 “리빙 라이브러리” 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제2절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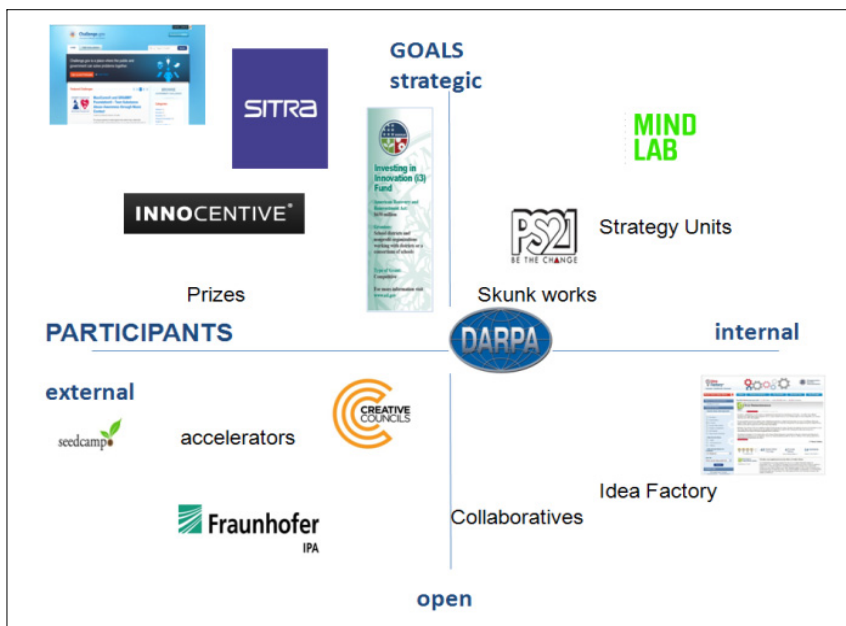
- 국가가 제공하는 전통적인 사회서비스의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예산 감축 등 공공섹터의 혁신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과거 공공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산을 처분, 동결하고 구매 및 소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시도되었음
- 조직적인 차원에서 공공예산을 절약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은 보통 조직내 부서와 영역을 넘어서 이뤄짐
 - ① 규모의 경제 : 비영업부서 및 웹포털 콜센터의 통합
 - ② 범위의 경제 : 원스톱 서비스 제공
 - ③ 흐름의 경제 : 서비스 통합
 - ④ 신축의 경제
 - ⑤ 회로경제 : 미래 비용 절감, 적자 예방과 관련된 방법
- 조직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부와 시민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하고 여기에 새로운 경제 개념을 도입할 것인지와 관계된 부분임
 - ① 책임 경제 : 커뮤니티 자산, 공원 도서관 등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시민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방식

- ② 가시성 경제 : 공공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
- ③ 규제와 위협의 경제
- ④ 헌신의 경제 : 자원봉사나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해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헌신도를 높이는 것
- 네스타(NESTA)의 크리에이티브 카운실(Creative Council)은 지방정부가 공공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돕는 프로그램임. 사회혁신의 주요 프로세스에 근거해 진행됨
- 아래와 같은 지방정부 혁신 로드맵이 필요함
 - ① 아이디어 생성 : 연구를 통한 혁신의 대상 발굴 및 아이디어 생성
 - ② 워킹 프로토타입 개발 : 혁신의 대상을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가시화하는 단계로 2박 3일의 캠프나 페스티벌을 활용할 수 있음
 - ③ 테스트 및 실행 : 시상과 인센티브 시스템 활용
 - ④ 프로토타입 선택 과정 : 지방정부는 선택 시 예측불가능성 등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
- 프로세스의 단계
 - ① 문제를 이해하고 기회를 찾아내는 것
 - ② 아이디어의 생성
 - ③ 아이디어 테스트
 - ④ 효과의 평가
 - ⑤ 적용 및 실행
 - ⑥ 성장 및 확대
 - ⑦ 전체 시스템화의 가능성



〈그림 3-1〉 사회혁신 프로세스의 단계

- 연구를 통해 세부정책을 만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함. 이는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정책서류보다 실용적임. 네스타는 대조군 활용을 통해 프로토타입 선택 시 나타날 위험을 경고하기도 함
- 이와 함께 예방차원의 접근방법을 통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대응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함
- 공공예산의 한계 속에서 혁신적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비혁신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함. 즉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창조적 해체, 출구전략이 필요함. 출구전략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과정을 만들고 실제로 과거의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병합시키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혁신을 도입하고 시도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모델을 고민해 보고 각 지방정부에 맞는 모델을 채택하는 것임



〈그림 3-2〉 지방정부 혁신 도입 방식

제4장 사회혁신 국내외 사례

제1절 국외사례

제2절 국내사례

제 4 장

사회혁신 국내외 사례

제1절 국외사례

1. 기업의 사회혁신

1) 인텔

- 인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더 나아가 사회혁신 요소를 도입한 대표적 기업임.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집약시키는 기업인 인텔의 사회혁신에 대한 3가지 접근은 다음과 같음
 - ① 사회적기업 역량강화(Empowering social entrepreneurs)
 - ②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하기(Transforming ideas into solutions)
 - ③ 파트너십 환경 만들기(Building the partnership ecosystem)

2) 록펠러 재단

- 록펠러재단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한 지역 국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사회혁신이 필요하다고 관점에서 출발함
-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혁신뿐만 아니라 과정의 혁신이 중요하

며 이는 특정한 능력이 필요함. 특히 사회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사회부분에서의 능력이 필요함

- 혁신적 역량을 갖춘 기관들은 경계를 넘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eco-system)를 형성함.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고 방법론을 개발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나 문제들이 지원체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함(예 : 인도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
- 록펠러재단은 기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혁신적인 기관과 개인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음

3) 식스(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 Social Innovation Exchange)

- 최근 사회혁신이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사회혁신 영역의 혁신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는 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Social Innovation Exchange, 이하 SIX)를 들 수 있음
- 식스(SIX)는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영파운데이션의 소셜벤처로 3,000개가 넘는 사회혁신 관련 기관, 개인, 단체, 학계의 그룹들을 멤버로 두고 있음. 최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책적으로 시작한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시작한 식스는 유럽 내 대표적인 사회혁신 네트워크인 유클리드 네트워크 등과 함께 유럽 전역에서 사회혁신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⁵⁾
- 식스는 매해 식스서머스쿨을 개최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음. 최근 식스는 지역별 식스 네트워크를 선보였는데 그 처음이 식스 아시아임

5) www.socialinnovation.europe

- 식스의 이런 모든 활동은 국가, 분야, 섹터 등 다양한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음

2.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1) 일본

- 뉴공공공유(New Public Common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정부만이 아니라, 비영리단체(NPO), 일반 기업,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시도는 행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에 관련 영역에서 유사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위탁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노동 빈곤층과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분, 그리고 NPO에 담긴 작은 거품경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건장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호주

- (1) Radically Redesign : 혁신적 디자인을 통한 효과적 공공서비스 제공
- 호주의 사회혁신센터는 새로운 해결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접근방식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으며, 그 중의 하나로 급진적인 리디자인(Radically Redesign)팀을 만들었음
- 공공서비스의 사용 개선의 측면에서 볼 때, 개선된 결과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의 개선과 커뮤니티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함

- 호주 사회혁신센터는 서비스 제공에서 기존의 하향식 방식과 달리 상향식을 기본으로 하향식을 결합하고 있음. 즉, 먼저 사용자들의 문제와 욕구를 예상 결과들과 결합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나리오와 참여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생산해냄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디자이너, 사회학자,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분석가들)의 협조가 필요함
-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호주의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Family by Family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직접 이 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참여해 수혜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생산해내며, 서비스 제공 또한 가족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짐. 최근에는 풍요로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공공예산을 절감하는 공공서비스라고 하면, 대부분이 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마련임. 하지만,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격차가 아닌 급진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람으로 자원으로 여기고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2) Social Impact Bond : 공공예산 마련의 새로운 방안

- 소셜임팩트본즈(Social Impact Bond)는 공공예산 절감과 공공서비스 혁신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음. 영국, 미국에서 소규모로 시도되고 있는 이 방법은 최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⁶⁾도 시범프로젝트로 시도함

6)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정부의 가족 공동체 서비스부는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들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임. 3백만이 넘는 고객들이 뉴사우스웨일즈에 있으며, 2010/2011년에는 56억달러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만명이 넘는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음. 벤 캐일즈는 각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소셜임팩트본즈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투자를 하고 이 서비스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가 원래 지출해야 했던 서비스 비용을 투자자인 민간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예산 확충을 돕는 새로운 방법임
- 기존의 공공서비스(위탁)계약이 서비스 대상에 따라 계약과 투자가 진행되었다면, 소셜임팩트본즈는 공공서비스를 성과에 따라 지급하며,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고려해 지역과 개인에 대응할 수 있는가, 즉 혁신에 중점을 둠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① 성과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자도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는 점, ② 예방, 초기 상황 개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는 점, ③ 섹터 간 협력을 위한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해가 커짐.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일이 진행됨)을 고려해 시범 프로젝트를 시도함
-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모든 이해관계자(정부, NGO, 투자자)의 사고방식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와 NGO는 프로그램이 성취해야 할 성과와 혜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만 함. 더불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을 증진시켜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끝으로 초기 설치와 시도에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현재 3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셜임팩트본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아래 몇 가지 이유로 다른 계약이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① 성과 성취와 연결된 비용지급, ② 공공지출의 효과측정, ③ 혁신과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④ 서비스 제공과 운용에서 NGO의 역량강화, ⑤ 요구와 정부의 우선순위를 개입을 통한 표출이 그것임

제2절 국내사례

1. 서울시의 시민사회 혁신 사례

-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I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혁신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음
- 최근 서울시는 사회혁신적 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희망온돌 프로젝트가 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타당성 심의 조사를 통해 공공지출 감소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희망온돌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그 외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 ① 트위터를 통한 즉각적인 시민 대응 시스템
 - ② 커뮤니티 맵핑을 통한 새로운 공유 방식의 도입
 - ③ 적극적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④ 페이스북을 통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시민 참여

2.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과제

- 서울시 재정현황과 당면한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의 선결이 요구됨
 - ① 재정 건전성 재고 :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
 - ② 재정 분권화 시스템 개혁
 - ③ 참여 : 지역 커뮤니티와 민간부문의 참여
 - ④ 인센티브와 동기 부여의 장치

1) 재정 바로 세우기(Financial Soundness)

- 재정건전성 제고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본요건임
- 수입 극대화와 재정지출 억제 개념보다는 적재적소에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 지출이 바람직함
- 재정 바로 세우기의 요건
 - －재정운용의 원칙 또는 규율 확립
 -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
 - －역스필오버(Reverse Spillover) 효과의 방지

2) 재정 나누기(Fiscal Decentralization)

- 25개 자치구의 분권화 시스템 개혁 필요
- 자치구에 보다 큰 재정 자율성 부여
-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입 구조의 개선 모색 필요
 -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 지속 추진
 - －분권화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상위정부의 재정 독점주의 지양 필요

3) 함께하기(Doing Together)

-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장려
- 공공서비스 제공에 민간부문의 참여유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인
 - 공공구매계약 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가산점 부여
 - －지역 공동체의 공공서비스 참여 장려

4) 보상하기(Motivation)

- 자치구의 공공서비스 혁신 노력 보상
- 조정교부금제도의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 현재는 3가지 기준에 의하여 인센티브 지급
 - － 현재 : 재정운영의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 － 향후 : 공공서비스 혁신 항목 추가

제5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적 방법론

제1절 행사 개요

제2절 행사 설계

제3절 행사 결과

제 5 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적 방법론

제1절 행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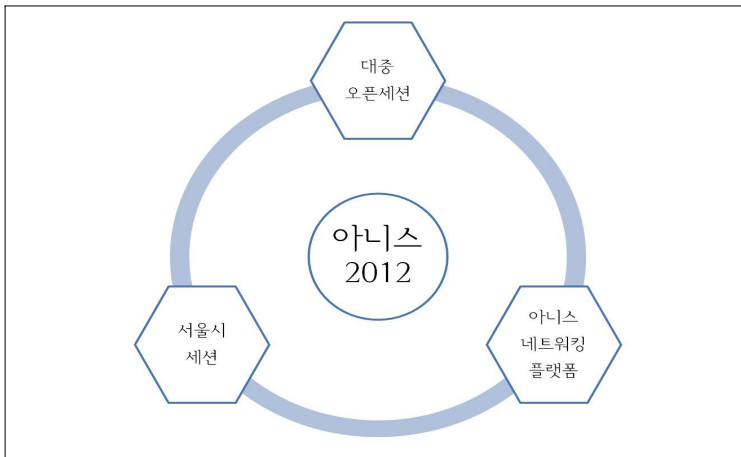
1. 행사 목적

- 서울 및 아시아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인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국제적인 공유의 장으로서의 기능 조성
- 사회혁신 촉진과 확산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 및 그 과정에서의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
- 아시아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2. 행사 구성

- 제목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 2012
- 주제 : 사회혁신을 위한 섹터 간 협력
- 일시 : 2012년 6월 13일 ~ 15일(2박 3일)

- 장소 : 셰라톤 디큐브 호텔, 그랜드 볼룸(6층), 서울, 한국
- 주최 : (재)희망제작소, 인텔 아시아, 서울연구원
- 후원 : 서울시
- 파트너 : 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Social Innovation Exchange), 아름다운 커피
- 연구 편당 파트너 : 록펠러재단
- 참가자 : 총 16개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참석
 -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중국, 타이완,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영국, 미국
 - －사회혁신계 활동가, 연구자, 공무원 98명, 서울시 특별 세션 참가자 53명, 일반 시민 43명 등 총 195명이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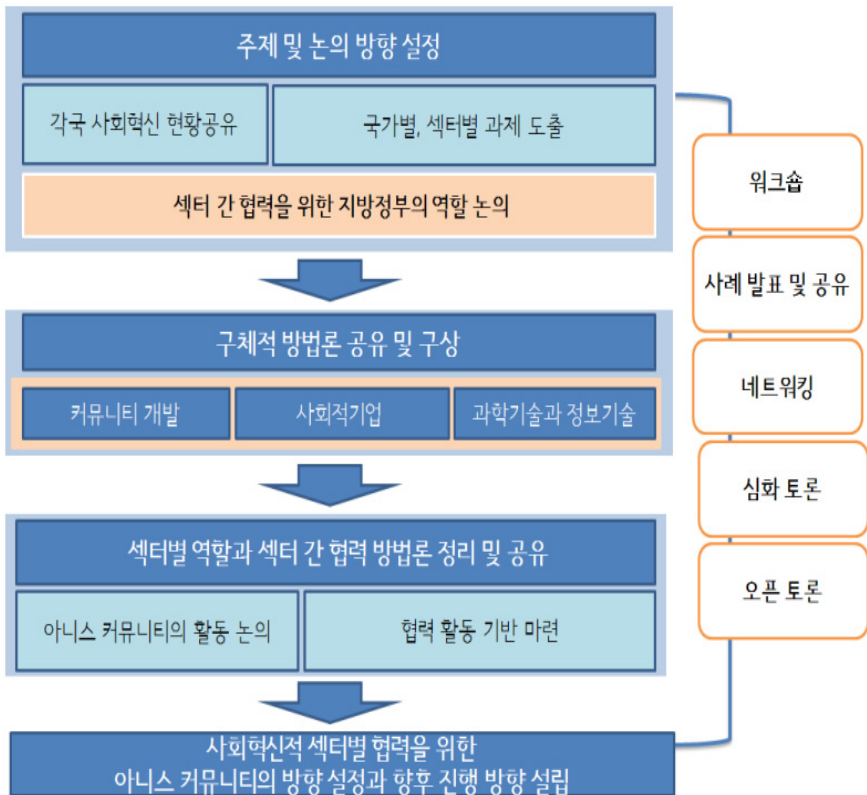
〈그림 5-1〉 행사 구성도

3. 행사 구조

- 2012년 제 3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은 기존의 초청

자 참여행사(Invitation- only event)에서 벗어나 소통, 참여, 열린구조로 기획됨. 일반 시민과 지역의 활동가 등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1일 오전 오프닝 세션을 대중에게 공개함

- 서울연구원의 공동주최를 통해 시민섹터를 대표하는 (재)희망제작소, 비즈니스 섹터를 대표하는 인텔 아시아와 함께 공공섹터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공공섹터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과제를 함께 논의해보는 지방정부 특별 세션을 마련함. 더불어 기존 아니스 행사 진행 형태인 네트워크, 그룹 토론, 1:1 교류를 중심으로 한 행사가 진행되었음



〈그림 5-2〉 행사 프로세스

4. 행사 프로그램

1) 6월 13일(1일차)

일시	내용
9 : 00	등록
10 : 00	환영 인사 - 윤석인(희망제작소 소장) - 안잔 고취(인텔 아시아 태평양 디렉터) - 이창현(서울연구원 원장)
10 : 30	기조 연설 - 제프 멀건(네스타 대표)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11 : 30	점심시간
13 : 00	글로벌 사회혁신 투어 - 리차드 홀(인텔) - 아미라 이브라힘(록펠러재단) - 루이즈 폴포드(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대표)
13 : 50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 에이다 웡(홍콩당대문화, 홍콩) - 수닛 슈레스타(체인지퓨전, 태국) - 이정옥(아레나, 한국) - 시호 니시아마(릿쿄대학, 일본) - 제클린 로(리엔센터, 싱가포르) - 크리스천 스텐타(호주사회혁신센터, 호주)
15 : 10	휴식
15 : 30	서울시 특별 세션 : 공공예산과 사회혁신 세션기조발표 : 제프 멀건(네스타 대표) 사례발표 - 배준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브렌트 카핀(호주사회혁신센터 대표) - 토시오 스가와라(일본자치행정연구소 연구위원) - 벤 게일즈(호주 사우스웨일즈 정부 디렉터) 토론 - 좌장 :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 패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진영 사장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서울시 경영기획관 김인철 서울시 복지정책관 김선순
19 : 00	만찬

2) 6월 14일(2일차)

일시	내용
9 : 00	등록 및 네트워킹
10 : 00	사회혁신의 방법론 왓웍스 리서치 팀(영파운데이션) - 로렌 칸 - 지니 리 - 임소정
11 : 30	포스터세션
12 : 30	점심시간
14 : 00	사회혁신랩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펀딩 - 수닛 슈레스타(체인지퓨전, 태국) - 김아란(아름다운 재단, 한국)
	종합적인 커뮤니티 빌딩 - 토니 멜로토(가와드 칼링가, 필리핀) - 유창복(성미산마을, 한국)
	기술을 이용한 사회적 해결방안 - 장수영(포항공대, 한국) - 트리 몸푸니(이베카, 인도네시아) - 쉴피 카푸어(베리어브레이크, 인도)
16 : 00	휴식
16 : 20	워크숍 1 :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섹터 간 협력 - 스리니바스 가루다차르(인텔)
17 : 00	워크숍 2 : 협력을 위한 디자인적 접근 - 백준산(데시스 코리아) - 하워드 찬(커뮤니티 뮤지엄 프로젝트)
19 : 00	저녁식사(카페 슬로비)

3) 6월 15일(3일차)

일시	내용
9 : 00	등록 및 네트워킹
10 : 00	아니스 2012 돌아보기 - 에이다 웡(홍콩당대문화) - 리차드 홀(인텔)
10 : 30	오픈 협력 세션
12 : 30	점심식사

일시	내용
	청년 기업- 혁신과 기업가정신 - 키쇼 발라지(인텔)
14 : 00	아니스의 미래 계획 - 아니스 2013 및 향후 계획 - 식스 아시아 네트워크 소개 - 토론
14 : 45	폐회인사 - 송창석(희망제작소 부소장)

제2절 행사 설계

1. 주제 선정

- 아시아 사회혁신 현황 조사 :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네트워크 활동 및 사례 조사
- 아니스(ANIS) 커뮤니티 및 사회혁신 파트너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주제 선정

2. 참가자 및 발표자

- 정부, 민간, 학계, 기업, 비정부기구 등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사회혁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회혁신 리더들과 실무그룹 선정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 2012는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한 제프 멀건 (Geoff Mulgan)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대
- 두 기조연설자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인 사회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섹터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함



〈그림 5-3〉 기조연설 사진



〈그림 5-4〉 기조연설 중인 제프 멀건

발표자 : 제프 멀건(Geoff Mulgan) 영국, 네스타 CEO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의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영과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였으며 현재는 네스타(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의 CEO를 맡고 있음.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 정부 정책실장이자 총리실 정책자문담당을 맡았으며, 그 이전에는 싱크탱크 데모스를 설립함. LSE, UCL, 멜버른 대학의 방문교수이자 중국 행정 지도자 학교(China Executive Leadership Academy)의 정규강사이기도 한 그는 현재 전 세계 많은 정부의 정책 자문을 맡고 있음. 최근에 나온 그의 저서로는 공공전략의 예술 - 공익을 위한 힘과 지식의 집결(OUP, 2008)과 좋은 힘, 나쁜 힘 : 정부의 이상과 배신(Penguin, 2006)이 있음.



〈그림 5-5〉 기조연설 중인 박원순

박원순(Wonsoon Park) 대한민국, 제35대 서울특별시 시장

1982년부터 1983년까지 2년간 경상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함.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80~90년대 인권변호사로 많은 정치사범들을 변호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활동가 중 한 명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1994), 자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단체 아름다운 재단(2000), 재활용과 재사용 문화를 퍼뜨리기 위한 아름다운 가게(2002),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2006)를 설립함. 2011년에 제35대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당선됨

3. 프로그램 세션 기획 및 콘텐츠 기획

-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세션 구성
-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전통적인 강연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참여형 토론 기법 적용

1) 국제 사회혁신 프로그램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회혁신 관련 기관을 초대해 최근 국제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함
 - －세션명 : 세계 사회혁신 투어(Global Social Innovation Tour)
- 리차드 홀(인텔, 기업의 사회혁신 담당), 아미라 이브라임(록펠러재단,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담당), 루이즈 폴포드(식스)가 초대되어 각 기관의 사회혁신 활동을 소개함



〈그림 5-6〉 세계 사회혁신 투어



〈그림 5-7〉 인텔 기업의 사회혁신

발표자 : 리차드 홀(Richard Hall), 인텔 국제 전략 제휴부서 대표

세계 반도체 사업의 선두기업인 인텔의 국제 전략 제휴 부서의 대표임.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고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연합과, 넷호프 그리고 그 외 다른 개발기관과의 국제협력관계를 관리하고 있음.



〈그림 5-8〉 록펠러 재단의 사회혁신

발표자 : 아미라 이브라힘(Amira Ibrahim) 어소시에이트, 록펠러 재단, 미국

2010년부터 록펠러 재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재단의 원조 제공 프로세스와 파트너와의 협력, 그리고 연구사업의 지원을 통해 현재와 미래 수혜자 관계를 관리하고 있음. 콜럼비아대학의 사회경제연구정책원의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근무했으며, 골드만 삭스, 씨티그룹, 유니세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그림 5-9〉 식스(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발표자 : 루이즈 풀포드(Louise Pulford), 식스 대표, 영 파운데이션, 영국

루이즈는 사회혁신으로 변화를 이끌려는 글로벌 네트워크 식스(SIX, Social Innovation eXchange)의 수장으로, 식스의 네트워크를 실행하고 관련된 두 웹사이트(식스와 소셜 이노베이터)의 관리, 국제 행사 실행, 식스의 글로벌 커뮤니티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루이즈는 현재 식스의 기반이 된 영 파운데이션의 국제업무를 담당하기도 함

2) 아시아 사회혁신 프로그램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은 매해 아시아 내 주요 사회혁신의 흐름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Asia Social Innovation Tour) 세션을 진행하고 있음
-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는 참가자들이 아시아 사회혁신의 흐름을 빠르고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그나이트(Ignite)⁷⁾라는 방식을 도입해 진행됨. 발표 후에는 세션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아시아 사회혁신을 보는 관점과 사례들을 제안하는 그룹 토론이 이어짐
- 이번 해에는 총 6개 지역(홍콩,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이 대표적

7) 이그나이트(Ignite)는 발표자가 20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해 슬라이드당 15초씩 5분안에 발표를 마치는 방식임.

인 사례와 흐름을 소개함. 홍콩의 에이다 왕은 커뮤니티 보존과 관련한 홍콩 정부와 시민사회를 알려주었으며, 태국의 슈닛 슈레스타는 지난 해 홍수에 대처한 사회 내 모습을 전달함.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단체인 아레나와 민주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정옥 교수는 한국의 시민섹터와 정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함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회혁신기관인 리엔센터의 제클린 로(Jacqueline Loh)는 국제적인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혁신 기관과 단체들을 소개했으며, 호주사회혁신센터의 크리스천 스텐타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 사회 내 여러 가지 노력을 전달함
- 일본의 도시계획과 마을 만들기를 연구하고 있는 릿교대학의 시호 니시야마 교수는 공동체 내 자산의 혁신적 활용을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사회혁신도 설명함



〈그림 5-10〉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그림 5-11〉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발표자들

이정옥 (JeongOk Lee), 아레나공동대표, 대한민국	이정옥 아레나 공동대표의 주요관심사는 성평등, 대안개발, 평화이며 이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현 대구가톨릭대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장, IRI-ASIA추진위원으로 서울대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위클리솔 편집위원장, 미국하버드대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방문교수를 역임함
수닛 슈레스타 (Sunit Shresta) 체인지퓨전 대표, 태국	2001년 사회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영리 연구소 체인지퓨전 인스티튜트를 설립하였으며, 모바일 기반의 질병감시, 저소득 농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적정 기술, 2010 대홍수 시 오픈소스 재해정보관리시스템의 빠른 개발 등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함. 청년사회적기업, UnLtd 태국 프로그램, 그리고 체인지벤처를 통해 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함. 2009년,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만이 될 수 있는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됨
에이다 웡 (Ada Wong) 홍콩당대문화설립 자&명예회장, 홍콩	창조적인 교육, 사회혁신, 그리고 문화 발전의 열렬한 지지자로, 13년 전 비영리 홍콩당대문화회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홍콩의 유일한 예술고등학교인 홍콩창의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음.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완차이 지역구 지역의원, 시의원, 의장이었으며 현재는 서코우문 지역문화청, 예술박물관의 자문위원이며 홍콩슈안대학과 홍콩디자인센터의 이사회 멤버임
제클린 로 (Jacquelin Loh) 리엔센터대표, 싱가포르	개발경제학 연구자로 런던정경대학, 델리경제대학에서 일했으며 세계은행 컨설팅을 역임함.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여러 해 매니지먼트컨설턴트로 일했으며, 리엔센터에 합류하기 전에는 포드재단,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와 함께 자선 및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런던정경대학에서 대학원을, INSEAD에선 MBA를 취득함

크리스천 스텐타 (Christian Stenta) 호주사회혁신센터, 커뮤니케이션담당, 호주	맥델런센터에서 매니저로 있으면서 빈곤추방, 망명, 재무교양, 사례관리, 지역공동체 개발, 그리고 소매업 관리 및 개발 등의 일을 앵글리케어 SA와 함께했음. 그 이전엔 3년간 주의로원으로 St.Vincentde Paul Society에 유급, 자원봉사 일자리를 만들었고, PlayfordNorth의 가족공동체 의전서비스 협력매니저였음
시호 니시야마 (Shiho Nishiyama) 릭교대학교수, 일본	오차노미즈대학에서 도시지리학학사를, 게이오대학에서 도시사회학석·박사를 취득함. 아마나시 대학에서 조교수, 하버드대학에서 전임연구원을 거쳐 도쿄의 릭교대학에서 사회학 정교수로 취임함. 전공분야는 공동체 거버넌스와 시민운동 비교연구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있음. NPO와 사회적 기업에 의한 공동체 거버넌스가 어떻게 진보한 산업민주주의에서 도시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음

3) 참여형 오픈 토론

(1) 주제별 토론 및 질의

- 기조발제와 각 세션의 주제 발표 이후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원재 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이 진행됨. 발표자 전원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전영 사장과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김인철 서울시 경영기획관, 김선순 복지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함
- 토론은 패널만이 아니라, 이 세션에 참석한 아니스 참가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질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짐



〈그림 5-12〉 행사 토론 및 질의

(2) 오픈 협력 세션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 2012 마지막 날 오픈 협력 세션(Collaborative Session)을 진행함. 오픈 협력 세션은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누구나 의제를 제안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열린 구조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음
- 의제를 제안한 사람이 그 논의를 이끄는 리더가 되며 나중에 이 그룹이 위킹그룹이 될 경우 이 위킹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방식임
- 이번 해에는 총 6개의 주제가 논의되어 위킹그룹을 형성했으며 총 88명(중복 가능)이 위킹그룹에서 활동하기로 함



〈그림 5-13〉 오픈 협력 세션 진행 모습



〈그림 5-14〉 주제별 오픈 협력 세션 토론 내용 및 토론 결과 발표 모습

제3절 행사 결과

- 섹터 간 협력 파트너십 형성 : 주제에 맞게 공공섹터, 비즈니스 섹터, 시민 사회섹터가 공동주최기관이 되어 섹터 간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음
-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는 행사
 - － 열린 행사, 열린 형식으로서의 아니스
 - － 오프닝 세션(기조연설)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특별세션을 마련해 공공섹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국제네트워크/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 － 아니스는 아시아 지역의 행사이지만, 아시아를 넘어선 국제사회혁신네트워크(식스, SIX)와 록펠러재단과의 협력을 이끌어냄
- 참가자들의 다양성
 - － 참가자들은 활동가, 사회적 기업가, 기업의 CSR 담당자, 연구자, 공무원, 일반 시민 등으로 다양했으며, 참가 기관들 또한 풀뿌리 단체에서부터 중간지원조직, 국제 조직까지 다양했음
- 지속적인 대화와 활동을 위한 워킹그룹 형성
 - － 4개의 새로운 워킹그룹이 형성되고, 2011년부터 활동해온 2개의 워킹그룹이 논의를 발전시킴
- 발표 및 그룹 토론을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 사례들과 현황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직관적으로 논의되던 사례들의 혁신성, 사회성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함
- 아니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회혁신 사례를 제안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아니스 사회혁신 연구에 포함될 예정임

제6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제1절 주체(섹터)별 역할 정립

제2절 주요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제3절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조성

제 6 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제1절 주체(섹터)별 역할 정립

1. 공공섹터의 역할

- 공공섹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사회적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시장주의나 복지사회 실현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임
- 이를 위해서는 공공섹터가 직접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환경과 장(기금마련, 중간지원조직, 제도적 지원 등)을 마련해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법들과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 성공적인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결과(output)중심적 평가에서부터 성과(outcome) 중심의 평가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혁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함

2. 민간(비즈니스) 섹터의 역할

- 민간(비즈니스) 섹터는 오랫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사회변화를 위한 역할로 진행하여 옴. 하지만 실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사업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사회적 혁신(Corporate Social Innovation)으로 변화해야 함
- 기업의 사회적 혁신(CSI)은 기업이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을 비즈니스 전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홍보, 자선이라는 주제 아래 이해되었다면 기업의 사회적 혁신은 기업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사회문제의 해결전략에서 찾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례만을 찾아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넘어 혁신적 아이디어의 생산과 성장을 돕는 환경과 생태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함

3. 시민사회 섹터의 역할

-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사회혁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음. 또한 시민사회는 새로운 운동의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에드보커시(advocacy)에서 새로운 운동의 방식인 사회문제 해결안 제시로 그 역할이 변화해야 함
-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주도해야 함
 - 사회혁신을 위한 협력을 이끄는 촉진제
 - 시민사회는 그 섹터 안에서 경쟁적인 관계보다 협력과 협동의 관계를 가짐.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아래 섹터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시민사회가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고 퍼실리테이팅 하는 역할을 해왔음. 이는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함

제2절 주요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1. 사회적기업 분야

1)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펀딩

-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기금은 ① 내적인 능력의 파악, ② 환경에 대한 파악, ③ 관계 형성의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사회적기업이 투자와 기금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로, 사회적기업의 내적인 능력 즉 흐름, 유연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 확장성이 중요함
-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펀딩은 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② 시장에 진입, ③ 수익성, ④ 확장성의 4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마다 다른 수입/비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다른 펀딩이 필요함
- 환경에 대한 파악은 ①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른 스펙트럼(사회적 효과와 수익으로 나눠서 볼 때), ② 사회적 투자에 따른 스펙트럼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혁신적 접근과 확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밸류 체인의 형성이 필요함(사회적기업/NGO와 비즈니스의 만남)

2) 크라우드 펀딩, 개미 스폰서 프로젝트

-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기금마련의 혁신적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일자리 법령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회적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아름다운 재단이 개미스폰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그 외 굿펀딩, 펀듀, 업스타트, 텀블벅, 콘크리트 등이 활동하고 있음
- 아름다운 재단은 1% 기부라는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왔으며, 최근 SNS 등 변화한 환경 속에서 혁신적 방법을 고민한 끝에 크라우드펀딩 방법을 도입해 개미스폰서 프로젝트를 시작함
 - －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과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와 NPO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고안됨
- 지금까지 21개의 프로젝트 중 15개의 프로젝트가 모금에 성공하였는데, 성공률은 71%로 46%인 킥스타터(kickstarter)보다 높음
 - － 현재 6천 4백만원이 모금되었으며, 총 1,618명이 참가함
 - － 아름다운 재단은 7월에 공식적인 론칭을 준비

2. 커뮤니티 개발 분야(Community Building)⁸⁾

1) 국외 사례 : 가와드 칼링가(Gawad Kalinga)

- 가와드 칼링가는 필리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가난과 홈리스(Homelessness)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커뮤니티 개발 모델로, 다양한 활동가들이 관계를 형성해 협력하는 것을 강조함

8) 커뮤니티 개발 분야는 한국에서는 마을만들기로 이해되고 있음

- 가와드 칼링가의 커뮤니티 개발 모델은 활동가들이 ‘국가건설운동’에 참여해 혁신적인 제도적 지평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 사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개인 기부자의 협력을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역량을 가진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⁹⁾
- 구체적으로 가와드 칼링가는 홈리스에게 물리적인 주거공간과 더불어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프로그램으로는 가치형성, 건강, 경제력, 아이들과 청년 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가 식량 생산 등이 있음

2) 국내 사례 : 성미산마을

- 성미산마을은 서울시에 위치한 도시 커뮤니티 공동체임. 18년 전부터 성미산마을로 이주한 사람들은 얼굴 없는 개인화와 과열되는 경쟁심리에 맞서 협력적인 마을 모델을 실험하고 창조해 옴
- 성미산마을은 경쟁적 성공과 산업화, 그리고 기술적 진보에 매달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임
- 이 공동체는 대안적인 모델 형성을 열망하면서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기반의 전통적인 마을처럼 연대하게 되었음. 특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도시라는 공간에서 혁신적이면서도 변화에 적응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음
- 성미산마을은 협동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마을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스스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음

9) www.gk1world.com

3.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분야

-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1) 사회혁신과 적정기술

-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적 질문에서 사회적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음. 10%의 경제적 능력을 가진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90%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적정기술임
- 적정기술은 처음에는 타국에서 개발되어 필요한 지역에 보내졌지만, 지금은 지역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과 생상품도 관리하고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커뮤니티 중심의 수력발전소 개발

- 트리 몐푸니¹⁰⁾는 커뮤니티 자력의 수력발전을 개발해 전력 공급을 해결하고 전력 생산을 커뮤니티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커뮤니티의 경제력도 향상시킴
- 이익을 내는 상업성을 가진 수력발전의 규모는 2,500킬로와트에서 1.5메가와트에 이름. 2,500킬로와트보다 작으면 주로 자선사업에 의해 전력 공급 프로젝트가 진행됨
- 2,500킬로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의 경우 반은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반은 투

10) 트리 몐푸니 이베카(IBEKA) 대표는 아시아가 당면한 빈곤,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한 인물로 2011년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그는 사회적기업 이베카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환경에 걸맞는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었다.

자가를 찾을 수 있는 규모인. 커뮤니티 기반으로 투자받아 설치한 시설을 커뮤니티가 소유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함

-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30%의 기술과 70%의 사회적 노력으로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커뮤니티 역량 강화는 마을 단위에서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어야 함. 또한 지역 커뮤니티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기술의 적정성도 중요함. 마을의 거버넌스, 사회적이고 환경·생태계적 측면이 아주 중요함

3) 배리어브레이커스(BarriersBreakers) 기술

- 배리어브레이커스 기술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상 수화 통/번역 서비스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청각장애인들이 통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술임
-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능력이 없는 것(disability)이 아니라 능력이 완전하지 못해(Impairment)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시작되었음
 - 기존의 인식은 장애인이 소수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을 배제했지만,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인도에서 4명 중 한명은 청력에 장애가 있으며 이는 장애가 주류임을 보여줌
- 이 서비스는 signandtalk.org에 청각장애자가 접속하면 그의 수화를 읽고 이를 통역해주는 것으로, 수화가능자를 통역자로 채용하고 양자는 일정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됨
 -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연결만 할 뿐이며, 청각장애인 스스로 대화를 통해 배달이 가능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청각장애자에 대한 전화할인 서비스 대상에서 인터넷이 제외됨에 따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② 수화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인도정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

4. 디자인 분야

- 디자인은 최근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입되고 있음
- 이번 아니스에서는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국제 디자인 네트워크인 데시스(DESIS :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준상과 시스템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도와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홍콩 커뮤니티 뮤지엄 프로젝트(Communtiy Museum Project)의 하워드 첸이 디자인과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음
- 이 그룹 토론은 현재 디자인 활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각 기관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공유함으로써 이후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그룹토론을 통해 각 기관 혹은 활동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디자인의 정의 및 디자인의 활용방식과 디자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 및 부족이 발견되었음
- 디자인은 첫째, 전문분야의 디자인으로 주로 결과물/시각화와 관계되며, 둘째, 사고의 도구로 기획하거나 사회혁신적 서비스 등을 기획할 때 프로세스에 적용되며, 셋째, 운영의 개념이 존재
- 결국, 직업 디자이너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로서 무언가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바꾸려고 할 때 새로운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를 새로운 자리에 넣거나 개입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 자체가 디자인이며, 나아가 개선과 해결의 과정이 디자인임

제3절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조성

1. 구성 및 역할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은 2010년부터 아시아 내 사회혁신 강화를 위해 워킹그룹을 형성해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2011년에는 4개의 워킹그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중 2개의 워킹그룹은 2012년에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1) 워킹그룹1 : 케이스 스터디 뱅크(네트워크 오프 네트워크)

-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¹¹⁾인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 2012에 록펠러재단을 리서치 파트너로 하고 있음. 총 29명이 활동을 함께 하며, 워킹그룹 리더는 이자벨 피트(로칼리티), 김정원(희망제작소), 양소연(희망제작소)
-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 ①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페이스북에 페이지 혹은 그룹 만들기
 - 대중에게 개방하고 지역별·주제별 하위그룹 생성
 - 지역 :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 인도, 홍콩, 필리핀, 태국 등
 - 주제 : 지속가능성, 기술(Skilling)모델
 - ② 대사(Ambassadors)를 정기적으로 임명하고 관련기사나 글을 포스팅하기
 - 지역별 하위그룹별로 일정 기간 책임을 맡아 진행하기
 - ③ 케이스 스터디 뱅크 블로그

11) 연구명은 ‘Creating the Base of Social Innovation Eco-system in Asia’임. (재)희망제작소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니스 커뮤니티와 함께 아시아 내 사회혁신의 지형을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을 촉진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샘플과 팀을 올리기
 - 워킹그룹 멤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
- ④ 필드 비짓 - 멤버 지역에 갈 경우 방문지 섭외 등을 도우면서 진행

2) 워킹그룹2 :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총 16명의 아니스 참가자가 앞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이 워킹그룹은 리엔센터의 제클린 로와 영파운데이션의 비키 셀릭이 이끌 예정임
-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 ① 아시아 내 상황은 ㉠ 자원이 많지만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 아시아 지역내 특정 자원이 부족하거나, ㉢ 섹터를 넘어선 자원이 부족
 - ②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로 가능한 것은 텍스트북, 전문가 풀양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언어적 문제 해결, 정기적인 미팅, 1:1 학습, 각 단계에서의 더 나은 자원의 활용 등이 있음
 - ③ 아니스 및 아시아 내 네트워크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최고의 자원을 살펴보고 지역 내 전문가의 리스트업 진행
 - ④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실제로 구성

3) 워킹그룹3 : 사회적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을 형성할 것인가?

- 2011년부터 진행되었던 논의로 2012년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을 통해 그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게 됨. 10명이 워킹그룹 리더인 비제이 아다타(Vijay Adyata)와 함께 활동할 예정임
-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 ①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법적, 기술적인 서비스와 정보 필요
 - ② 인큐베이팅 지원 : 비즈니스 플랜 및 전략, 기술과 소셜 미디어 활용,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 시범사업 및 시드 펀딩
 - ③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협력

- ④ 지식 공유 : 인큐베이션 지원 및 소셜 엔터프라이즈 맵핑에 대한 아시아 지역 내 연구 필요

4) 워킹그룹4 : 디자인은 서울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페이스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은 서울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썸 형식의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논의를 진행하게 됨. 총 6명이 활동할 예정이며 워킹그룹 리더는 영파운데이션의 임소정임
-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 ① 2010년 서울은 디자인 수도였음. 디자인은 도시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디자인과 사회혁신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함
 - ② 좋은 디자인이란 기능, 구조 및 미적 요소로 이해되며, 과거에는 주로 물리적인 미로 해석되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고 있음. 그 증거로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를 위해 디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음.
 - ③ 향후 워킹그룹은 디자인 커뮤니티와 시민섹터와의 연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적인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디자인과 사회혁신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필요함

5) 워킹그룹5 : 아니스는 어떻게 사회혁신모델의 복제(Replication)를 도울 것인가?

- 총 12명이 활동할 예정이며 호주사회혁신센터의 대표인 브렌튼 카핀(Brenton Caffin)이 담당하게 됨
-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 ① 복제의 가능성을 가시화해야 함
 - ② 주요 요소에 대한 파악(꼭 가져야 할 것/피해야 할 것)

- ③ 복제 모델에 대한 분류 : 복제를 위한 교재(playbook) 출판, 지속적인 채택을 통해 증식과 규모의 확장이 가능(예 : 프랜차이즈)
- ④ 이러한 복제/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 제안
- ⑤ 포스터 세션에 교류 가게(Swap Shop)를 제공
- ⑥ 아니스는 복제/증식에 대한 최고의 기회를 감별하는 곳
- ⑦ 프레임워크 제공
- ⑧ 교류, 인턴십 제공
- ⑨ 상호 학습 : 쌍방향의 가치 교류
- ⑩ 복제와 관련한 지식, 정부, 지혜를 거루는 경쟁 어워드

6) 워킹그룹6 : 섹터 간 협력을 위한 이해관계자

- 총 15명이 활동하며 쉴피 카푸어(Shilpi Kapoor)가 워킹그룹을 이끌게 됨
-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 섹터 간 협력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을 논의함
 - ① 정부 : 정책, 협력, 펀딩, 인큐베이션
 - ② 커뮤니티(시민) : 주인의식, 참여, 자원의 운영, 의식의 성장
 - ③ 비즈니스(기업) 섹터 : 기업의 사회혁신, 펀드, 자원 공유
 - ④ 국제기구 : 아웃리치, 정책, 연구, 캠페인 및 에드보커시
 - ⑤ 교육기구 : 연구/ 역량강화/ 커리큘럼 개발
 - ⑥ 미디어/ 소셜 미디어 : 의식/ 영감/ 동원
- 과제 : 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야 함
 - 참여 방식
 - 역할과 그 의미
 - 참여 시기

2. 향후 활동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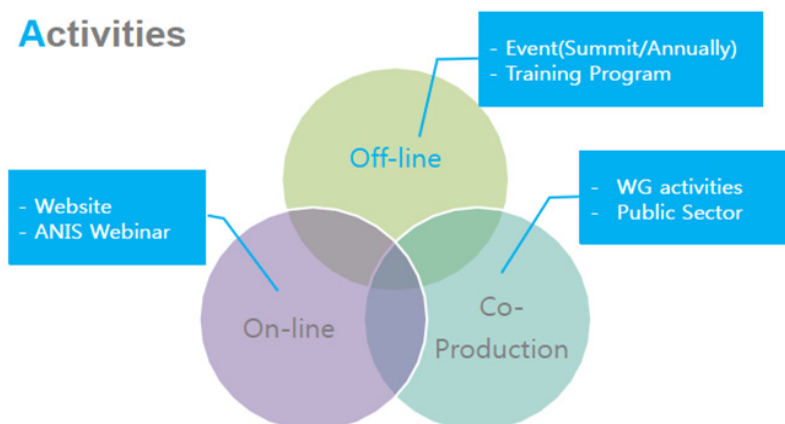
- 아니스의 워킹그룹은 아니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모임이며 아니스 공동주최자들은 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실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니스 워킹그룹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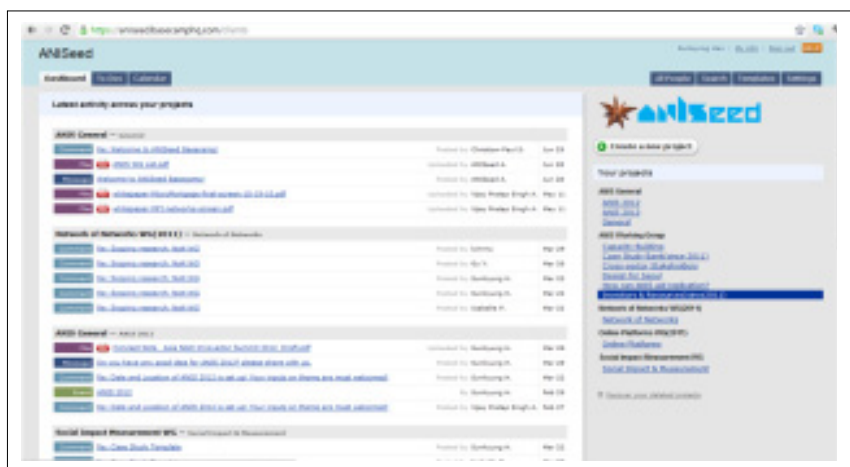
〈그림 6-1〉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향

- 아니스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 ① 아니시드(ANISeED) 온라인 플랫폼 : <https://aniseed.basecampHQ.com/>에서 워킹그룹별로 활동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와 글을 남길 수 있음
 - ② 워킹그룹별 미팅 진행 : 인텔에서 지원하는 웨비나(Web+Seminar) 플랫폼이나 그 외 전화, 스카이프 등을 통해 정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음
 - ③ 아니스 웨비나 시리즈 : 지역적인 거리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콘퍼런스 톨로, 사회혁신 트렌트를 소개하고 베스트 사례를 공유함
 - ④ 아니스 콘퍼런스 : 매년 진행되는 아시아 사회혁신가들의 플랫폼으로 워킹그룹의 활동 내용은 오픈 협력 세션 외에도 세션 주제로 진행됨
-예 : 소셜 이노베이션 랩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펀딩,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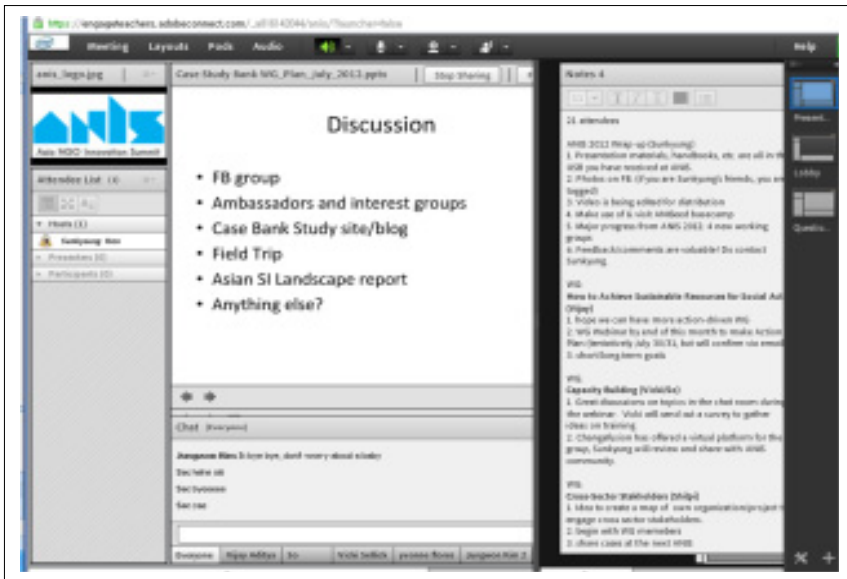
Activities



〈그림 6-2〉 아니스 워킹그룹 활동 이용 수단



〈그림 6-3〉 아니시드 : 온라인 플랫폼



〈그림 6-4〉 아니스 웨비나 시리즈

제7장 결론

제1절 주체(섹터)별 협력 방안

제2절 주요 분야 간 협력 방안

제1절 주체(섹터)별 협력 방안

- 사회혁신은 이제 특정 주체, 특정 분야(비즈니스, 기술, 의학 등)에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가 아닌 세계적인 흐름임
- 사회혁신의 성장은 섹터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아래는 그 사례들임
 - ① 도시 단위 사회혁신 캠프 혹은 공원 : 소셜 이노베이션 파크,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 ② 사회혁신기금 조성
 - ③ 사회혁신센터나 담당 부서 설치 : 미국의 시민참여와 사회혁신오피스
 - ④ 소셜임팩트본즈 : 영국, 호주, 미국에서 진행 중
 - ⑤ 식스(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 국제 사회혁신 네트워크 경계를 넘는 협력을 바탕으로 설립됨
 - ⑥ 빅소사이어티 캐피탈 은행 : 영국의 수면계좌들을 가지고 만든 사회혁신자금
 - ⑦ 히리코 시티 자동차 : 빌바오의 소셜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MIT 등 학

계, 비즈니스, 정부 그리고 사회혁신 기관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 만들어 낸 접을 수 있는 자동차.

⑧ 스튜디오 스쿨 : 영국의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섹터 간의 협력은 지식이나 기술보다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함. 즉 섹터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시민섹터와 정부 간의 불신은 오해만은 아니지만,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며 신뢰와 협력의 능력을 키워야 함

○ 특히 사회혁신의 성장과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을 신뢰하고 권한을 나눠주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함

제2절 주요 분야 간 협력 방안

○ 적절한 기술의 사용과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마을 단위에 알맞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커뮤니티 수준에서 필요한 협력은 먼저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배제 없는 포용으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한 사람들과 미리 그 결과에 대해 미리 얘기를 나누고 논의해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필요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에서 살펴본 섹터 간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의 협력이 아주 중요함.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임. 주요 창조에서도 정부와 비즈니스 섹터와의 협력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윤지현, 2010, 사회혁신의 이해, 『한국사회혁신학회보』 제1권 제1호, 한국사회혁신학회, pp.123-140
- 한선경·김정원, 2012, 한국사회혁신 둘러보기,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http://www.makehope.org>)
- 홍일표, 2012, 사회혁신: EU 맥락에 대한 검토, 희망서울 사회혁신 토론회 자료집
- Carmel O' Sullivan et al., 2011, Financing Social Impact, Social Innovation Europe Initiative
-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in Toronto, About Social Innovation, Canada, <http://socialinnovation.ca/about/social-innovation>
- European Union, 2010, This is European Social Innovation(<http://europa.eu>)
- Geoff Mulgan et al., 2007, Social Innovation, Skoll Centre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aid Business School
- Jim Phills, 2009,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 John Fairweather, 2010, Can building and construction sector innovation be improved? A review of innovation centr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New Zealand, New Zealand Foundation
- Jungwon Kim and Sunkyung Han, 2011, A Guided Tour of Social Innovation in Korea, Hope Institute
- Jürgen Howaldt and Michael Schwarz, 2010, Social Innovation: Concepts, research fields and international trends(www.internationalmonitoring.com)

Mark Goldenberg et al., 2009, Social Innovation in Canada:, An Update, CPRN Research Report

Mulgan, G., 2006, Social Innovation: What is is, Why it matters, how it can be accelerated”, Young Foundation Report, http://www.youngfoundation.org/files/images/03_07_What_it_is__SAID_.pdf

Mulgan, G., 2007, Social Silicon Valleys, Young Foundation, http://www.youngfoundation.org/files/images/SocialSiliconValleys_06.pdf

Phills, Deiglmeier & Miller, 2008,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Review Social Innovation http://www.ssireview.org/articles/entry/rediscovering_social_innovation/

Plan Institute, For Innovators Social Innovation, <http://institute.plan.ca/social-innovation/>
Public Innovators, What is Social Innovation, <http://publicinnovators.com/what-social-innovation>

S. Ville & E. Pol, 2008, Social Innovation: Buzz Word or Enduring Terms?,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ollongong. <http://ro.uow.edu.au/cgi/viewcontent.cgi?article=1195&context=commwkpapers>

SI2 Workshop, Definition of Social Innovation, Blog, http://www.si2.ca/?page_id=239

Yuko Harayama and Yoko Nitta, Introduction: Transforming Innovation to Address Social Challenges, Fostering Innovation to Address Social Challenges Workshop Proceedings, 2010, <http://www.oecd.org/dataoecd/37/11/47861327.pdf>

<http://idea.makehope.org/>(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http://sigeneration.ca/>(Social Innovation Generation in Canada)

<http://www.bre.co.uk/>(BRE Innovation Park)

<http://www.npi.org.cn/>(상해의 사회혁신파크)

<http://www.sbs.ox.ac.uk/skoll/>(University of Oxford)

<http://www.socialinnovation.europe>

<http://www.socialinnovationpark.org/>(싱가포르 사회혁신파크)

부 록

- 
1. 참가자 리스트
 2. 관련 자료
 3. 활동 사진
- 

1. 참가자 리스트

번호	국가/지역	이름	이메일	소속기관
1	홍콩	에이다 웡	wongada@netvigator.com	홍콩당대문화
2	대한민국	김아란	smileran@beautifulfund.org	아름다운 재단
3	대한민국	박아영	loana@makehope.org	희망제작소
4	미국	아미라 이브라힘	Albrahim@rockfound.org	록펠러재단
5	인도	안잔 고쉬	anjan.ghosh@intel.com	인텔아시아퍼시픽
6	호주	벤 게일스	ben.gales@facs.nsw.gov.au	뉴웨일즈정부
7	대한민국	박보래	brabobb@gmail.com	희망제작소
8	호주	브랜튼 카핀	bcaffin@tacs.org.au	호주사회혁신센터
9	대한민국	주병준	blue9234@seoul.go.kr	서울특별시
10	영국	카멜 오 설리번	carmel.osullivan@youngfoundation.org	영파운데이션
11	대한민국	송창석	song5245@makehope.org	희망제작소
12	대한민국	유창복	61bok@hanmail.net	성미산마을
13	대한민국	이창현	seoul@sdi.re.kr	서울연구원
14	파키스탄	데수데라이 파이살 무스타크	faisal.mushtaq@change.org.pk	체인지인에듀케이션-파키스탄
15	호주	크리스천 스텐타	christian.stenta@tacs.org.au	호주사회혁신센터
16	인도네시아	데바 라슈만	deva.rachmen@intel.com	인텔인도네시아
17	대한민국	변미리	miree21@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8	대한민국	성석완	pksk4014@yahoo.com	도시와커뮤니티센터
19	싱가포르	엘리자베스 콘	liz@thethoughtcollective.com.sg	소트콜렉티브
20	대한민국	형은희	rhsl70@seoul.go.kr	서울특별시
21	영국	제프 멀건	geoff.mulgan@nesta.org.uk	네스타
22	영국	지니 리	ginny.lee@youngfoundation.org	영파운데이션
23	대한민국	김귀자	gjkim111@seoul.go.kr	서울특별시
24	대한민국	송하진	ajsong@makehope.org	희망제작소
25	중국	항리 구에	hao.gui@intel.com	인텔
26	일본	히토시 키노시타	kino@areaia.jp	장소혁신협회(AIA)
27	대한민국	김홍찬	kimhongchan@seoul.go.kr	서울특별시
28	홍콩	하워드 찬	howard.ph.chan@gmail.com	커뮤니티뮤지엄프로젝트
29	대만	쉬-정 리우	Liunara@yahoo.com.tw	아우어스(OUR-s)
30	베트남	훙 닙 양	hungnguyenpaccom@gmail.com	피플원조코디네이팅회의(PACCOM)
31	대한민국	남혜선	kimmy96@haja.or.kr	하자센터
32	대한민국	곽현지	trust01@makehope.org	희망제작소

번호	국가/지역	이름	이메일	소속기관
33	대한민국	전현경	indisec@beautifulfoundation.org	아름다운 재단
34	대한민국	조인동	idcho@seoul.go.kr	서울특별시
35	싱가포르	자 린 로	jacqlah@smu.edu.sg	리엔센터
36	대한민국	제이슨 조	jasoncho04@benefitmag.kr	베네프
37	대한민국	이재령	jay.r.lee@intel.com	인텔코리아
38	대만	전좌-예첸	dance852008@mail2000.com.tw	타이완여성과학과기술협회 TWIST
39	필리핀	제니퍼 도밍고	Jennifer.Domingo@britishcouncil.org.ph	영국문화원필리핀
40	필리핀	제릭 리모안코	jerick.jimoanco@gmail.com	가와드 칼링가
41	대한민국	김진환	jkbstore@gmail.com	아름다운 커피
42	대한민국	백준상	joonsbaek@gmail.com	데시스
43	싱가포르	조이스 지아	joyce@foodforthought.com.sg	소트콜렉티브
45	대한민국	이주환	juhoanlee@makehope.org	희망제작소
46	대한민국	하정은	jungeun_ha@gmail.com	함께일하는재단
47	대한민국	이정옥	weeklysol@hotmail.com	아레나
48	대한민국	김정원	jungwonk@makehope.org	희망제작소
49	대한민국	배준식	jsbae@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0	인도	키쇼 발라지	Kishore.Balaji@intel.com	인텔인도네시아
51	대한민국	장경아	dreamholic22@gmail.com	함께일하는재단
52	영국	로렌 칸	lauren.kahn@youngfoundation.org	영파운데이션
53	싱가포르	리위 흥	jeannette@thethoughtcollective.com.sg	소트콜렉티브
54	중국	리우조우 흥	wanglili@nandu.org.cn	나라다재단
55	영국	루이스 펄포드	louise.pulford@socialinnovationexchange.org	영파운데이션
56	필리핀	마리아 테레사 엠 캄바	tcamba@telecentre.org	텔레센터파운데이션
57	일본	마사타 카무라세	murase@areaia.jp	장소혁신협회(AIA)
58	일본	미키 야사이	miki@hosei.ac.jp	호세이대학
59	말레이시아	옹시우 운	siouwoon.ong@penanginstitute.org	페낭연구소
72	미국	리처드 홀	richard.c.hall@intel.com	인텔
60	대한민국	양석원	seokwon@gmail.com	코업
61	대한민국	박성진	cdree@nate.com	희망제작소
62	대한민국	손성진	stginny79@hotmail.com	희망제작소
63	일본	시호 니시야마	snishiyama@rikkyo.ac.jp	릭교대학
64	인도	샐피 카푸르	shilpi@barrierbreak.com	베리어브레이커스테크놀로지
65	대만	이시민	fuel-cell@hotmail.com	정보사회촉진협회,타이완

번호	국가/지역	이름	이메일	소속기관
66	대한민국	김소미	shomi_kim@britishcouncil.or.kr	영국문화원한국
67	대만	션-리옌린 성	mrs_micro_work@gmail.com	타이완여성과학과기술협회 TWIST
68	영국	임소정	sojung_rim@youngfoundation.org	영파운데이션
69	대한민국	장수영	syc@postech.ac.kr	포항공과대학교
70	대한민국	양소연	syayang@makehope.org	희망제작소
71	인도	스리니바스 비 가루다차	srinivas_b.garudachar@intel.com	그라민인텔소셜비즈니스
75	대한민국	한수정	zini@beautifulstore.org	아름다운 커피
73	대한민국	윤석인	yunsin@makehope.org	희망제작소
74	대한민국	박선민	camilla@skhappiness.org	SK행복나눔재단
76	태국	수닛 슈레스타	sunit@changefusion.org	체인지퓨전
77	대한민국	한선경	alreadyi@makehope.org	희망제작소
78	대한민국	문희주	sylvia_moon@intel.com	인텔코리아
79	일본	토모히코 오카베	okabe@koto-lab.com	코토크랩
80	싱가포르	통 이	Yee@school-of-thought.com	스토틀컬렉티브
81	필리핀	토니 멜로토	tony_meloto@yahoo.com	가와드 칼링가
82	일본	토시오 스가와라	jicsuga@jca.apc.org	지방자치연구소
83	인도네시아	트리 뭉푸니	tri_mumpuni@gmail.com	이베카
84	영국	빅키 셀릭	vicki_sellick@youngfoundation.org	영파운데이션
85	인도	비제이 프라탑 싱아디타	vijay@ekgaon.com	이카온테크노로지
86	중국	왕 준	wangjun@fupin.org.cn	중국빈곤퇴치재단
87	대한민국	이원재	timelast@hani.co.kr	한겨레경제연구소
88	대한민국	박원순	wspark@seoul.go.kr	서울특별시
89	대한민국	김연희	havefun@seoul.go.kr	서울특별시
90	대한민국	이영은	yelee418@gmail.com	한국공정무역연합
91	중국	유 양구	benglen2001@gmail.com	에이에이치에이(AHA)
92	필리핀	이본느 플로레스	yvonne.flores@intel.com	인텔필리핀
93	중국	징 미	zhijing@fupin.org.cn	중국빈곤퇴치재단

2. 관련 자료

1) 아니스 2012에서 사용된 다양한 템플릿

- 사회혁신 사례 수집을 위한 템플릿

Country/Region: _____ name: _____

**Case study for Cross-sector collaboration
for social innovation in Asia.**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gather cross-sector collaboration for social innovation.

1. Would you share cross-sector collaboration – best or new practice- in your country? And please describe the case in detail by filling the blank.

Case Title	
Purpose of activity	
Activity Description	
Organization (Who leads activities?)	
Why do you recommend this program to look at?	
Do you think that is this case innovative? (If yes, why?)	

2. If you know other cross-sector collaboration cases, please introduce to us.

Case Title	Brief Description of Activities	Organization

○ 포스터 세션 프레임



ANIS
Asia NGO Innovation Summit

Poster Requirement and Template

The 3rd Asia NGO Innovation Summit 2012

Poster Title (Project Name)			
Organisation:		Presenter:	
Country: Town/City:	Organization Logo: - TIF or EPS format - CMYK color - 72 dpi/cm resolution - 100% scale	Presenter Photo: Same format with logo left.	
Overview of the Project/Program or Case: Please write a few sentences that give an overview of your organization's best case/practice or project/program in English and in no more than 100 words...			
Website address:			
Focus Areas: <i>Eg: elderly care, conservation, community regeneration etc</i>		Beneficiaries: <i>Eg: disabled people, migrant workers, local community etc</i>	
Partners, if any: <i>Do you deliver any work through/in collaboration with partners? If so, please list them.</i>		Funders: <i>Does this project attract specific funds from funders? If so, please list the funders, including a brief description (eg are they national, international etc)</i>	
Objectives <i>What does the project aim to do?</i>			
Success Factors ↓ <i>What, or who, has made this project successful?</i>		Challenges ↓ <i>what challenges have you faced in designing/delivering this project?</i>	
Results <i>What were the projects results, or outcomes?.</i>			

Seoul, Republic of Korea, 13-15 June, 2012

Impact measurement. <i>What method did you use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project?</i>	Top Tips. <i>Do you have any top tips for other organisations who are delivering similar projects in other areas?</i>
Process of the project/program.	
In the next year.... <i>How do you want the project develop in the next year? Please write next steps.</i>	
Calls for collaboration. <i>Are you interested in collaboration with other organisations, eg scaling up the project, sharing experience etc?</i>	
Contact details. 1. a specific person to contact, who works directly on the project. name: email: 2. a general contact for the organisation. name: email:	
Poster Visual1. <i>(High resolution photo, if any, that describe your poster)</i>	
Poster Visual2. <i>(High resolution photo, if any, that describe your poster).</i>	

Seoul, Republic of Korea, 13-15 June, 2012

○ 포스터보드(*위 템플릿의 내용으로 만들어짐)



Connect, Collaborate, Co-create Asia!
Collaboration across sectors for Social Innovation

"AHA@" Social Innovation Camp

Organisation AHA Social Innovation Center
Presenter Yuan GU
Country China
Town/City Shanghai



ASIA

Overview of the Project/Program or Case

Asia believes in young people as change makers and social innovation as the critical approach to a better world. We therefore organise 7-day Social Innovation Camps to foster social entrepreneurship of young people, where they learn by doing with facilitators from across sectors. The highlight of the workshop is a 12-hour "Innovation" incubation marathon where participants work in groups to explore solutions to problems from the real world. A pitch is held afterwards, and the winners have access to financial and intellectual support to move their ideas forward. The name of "AHA@" suggests the scalability of the model.

Website address

www.asia-si.com

Focus Areas

- Soc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 Social Innovation Incubating
- Youth Education

Beneficiaries

- young people
- social entrepreneurs
- social enterprise, community, NGOs

Partners, if any

Bruckner Youth Community, Linshu Summer University, other NGO/SC communities

Funders

various NGOs and Foundation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Objectives

- Introduce and provide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innovation to young people
- Find more social entrepreneurs and support their development
- Introduce scalable social innovation
- Standardize and scale up the model of SI Camp
- Form a community of social entrepreneurs

Success Factors

- Familiarity with social innovatio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youth education
- Scalable patterns from across sectors with shared values

Challenges

- Hard to communicate the impact
- Hard to scale up the model
- Hard to maintain a dynamic and productive community of social entrepreneurs

Results

- To formulate a standard model of Social Innovation Camp with a set of course modules and follow-up activities as well as "Innovation" and Pitch
- To graduate over 100 participants in 3 Social Innovation Camps
- Some participants will build up teams to realize their ideas generated during the Camp
- A community of participants will form

Impact measurement

- Quantitatively measure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ir innovative ideas
- Qualitatively track the development of participants and their ideas and gather anecdotal evidence
- Monitor the change of public awareness of SI & SC

Top Tips

- Build trust at the very beginning
- Allow group dynamics to stimulate innovative power
- Learn by doing
- Never underestimate what young people can create and achieve!

Process of the Social Innovation Camp

1. Candidates must fulfill the eligibility for their participation before recruited
2. Participants join in the Camp, having classroom education, conducting fieldwork research, working in groups to solve real problems and presenting their ideas in a pitch
3. Winners have access to financial and intellectual resources to move their ideas forward
4. Participants form a community of social entrepreneurs



Curriculum of "AHA@" SI Camp



In the next year...

1. Organize more Camps and help to organize local "AHA@" Camps
2. Enrich and refine content of the Camp
3. Include more social innovation-related enterprises which can be picked up by social innovators
4. Establish a productive SI community having regular contact with global community of its kind

Calls for collaboration

1. Share experience with capacity building organizations
2. Co-lead Social Innovation Camp
3. Monitor participants in the progress of their social business
4. Intensify the social innovation generated during the Camp

Contact details

- Project contact	name: Yuan GU	email: gpyuan@asia-si.com
- General contact	name: Yuan GU	email: gpyuan@asia-s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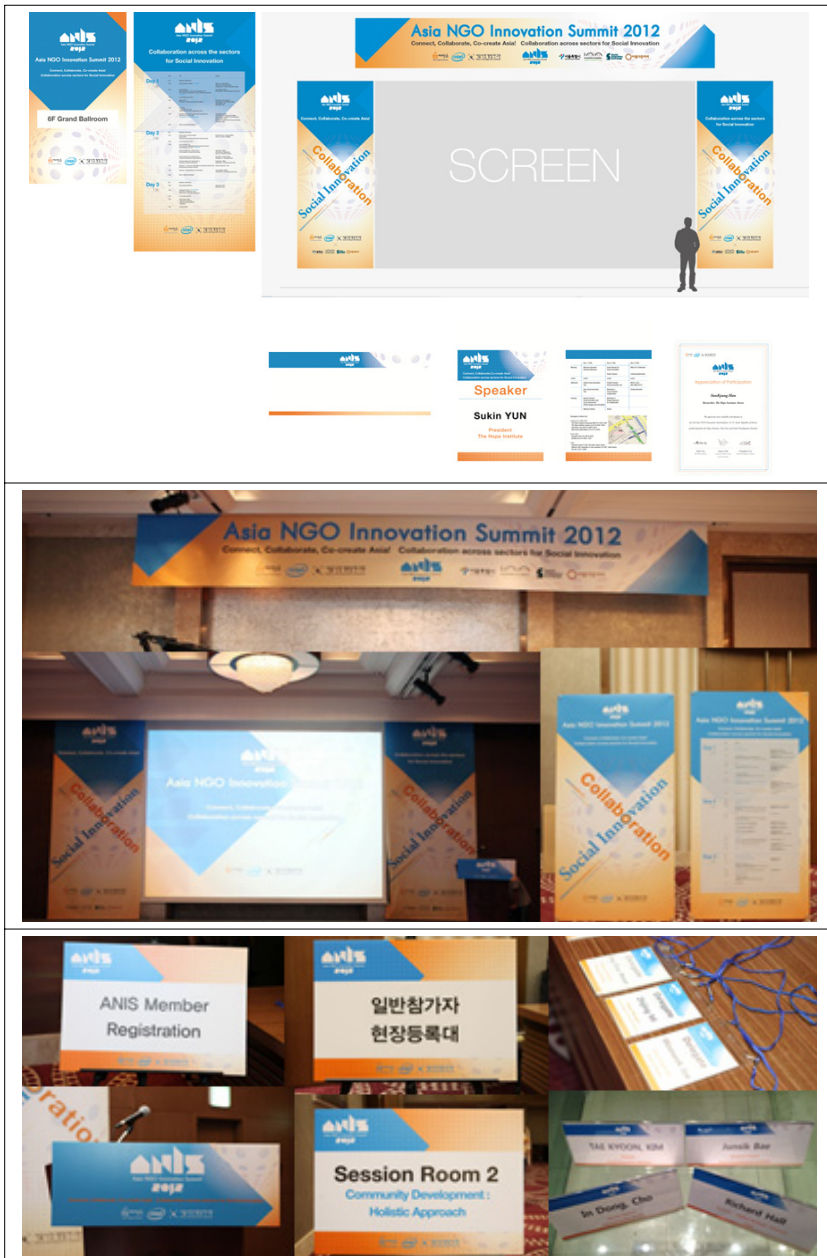
2) 자료집

	① 핸드북 ② 서울시세션북 ③ 포스터세션북
	④ 아니스 팸플릿

3) 기념품

	
① USB	② 현수막 가방

4) 브랜딩



3. 활동 사진

1) 만찬 및 공연



*공연 : 하자센터 작업장 페스티벌

2) 사회적기업 레스토랑, 카페 슬로비 방문



3) 아니스 2012 모습들



서울연 2012-PR-37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

발 행 인 이 창 현

발 행 일 2012년 8월 15일

발 행 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914-8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